

제 2023-1호  
대구고등학교총동창회

# 達 近

# 65<sup>th</sup>



大邱高等學校總同窓會



大邱高等學校總同窓會

## 제 2023-1호

| 발 행 | 대구고등학교총동창회

| 발행일 | 2023. 11. 25.

| 주 소 | 42416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73 대구고등학교역사관



## CONTENTS

- 03 인사말
- 06 동문탐방
- 14 상록수회
- 18 장학기금
- 22 모교소식
- 32 총동창회 소식
- 44 동창장학회 소식
- 49 지역별 소식
- 57 기수별 소식
- 78 취미별 소식
- 83 발간달구회보
- 84 내가 읽은 천자문
- 85 문학자판기
- 86 산사일기
- 졸업50주년 기념문집 발간 소감

## 2024년도 총동창회 주요행사

- 2024. 2. 1.(목) 제64회 졸업식
- 2024. 2. 21.(수) 2024 정기총회
- 2024. 2. 28.(수) 제64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 2024. 3. 4.(월) 2024학년도 입학식
- 2024. 4. 12.(금) 제66주년 개교기념일
- 2024. 4. 27.(토) 총동창회장배 기별낚시대회
- 2024. 4. 28.(일) 총동창회장배 기별테니스대회
- 2024. 5. 29.(수) 총동창회장배 기별골프대회
- 2024. 6. 09.(일) 제10회 달구산악축제
- 2024. 6. 23.(일) 총동창회장배 기별당구대회
- 2024. 8. 25.(일) 총동창회장배 기별바둑대회
- 2024. 10. 12.(토) 졸업3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 2024. 10. 13.(일) 제48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체육대회
- 2024. 10. 13.(일) 총동창회장배 기별배드민턴대회
- 2024. 12. 11.(수) 2024 대고인의 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고 선후배 동문님께!

어느 듯 시간이 흘러 2023년 계묘년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고등학교 제24대 총동창회의 발자취를 남기는 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촉된 총동창회 활성화에 우선하고 재학생들의 진학률을 향상시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학생에게는  
 첫째, 우리 대구고는 2.28민주화운동의 ‘주역 중 주역 학교’ 라는 것과  
 둘째, 우리 대고인은 그 어떤 고등학교 출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후배간의 유대관계와 패기와 박력이라는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셋째, 대내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3가지 자긍심을 가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문님께는  
 첫째, 우리는 대구고의 전통을 좋은 모습으로 이어 가야한다 라고  
 둘째,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자 라고  
 셋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구고의 위상과 존재감을 잘 지키자 라고  
 항상 당부해 왔습니다.

2년 동안,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라는 거함의 선장으로서 느낀 점은 총동창회는 동문의 ‘단합’ 과 누군가의 ‘관심’ 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모교는 지리적으로 다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우리 동문이 정성을 다해 관심을 가지면 또 급변하는 주변이 우리 대구고에 보탬이 된다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처럼 운동부의 활약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창궐로 일시 중단 또는 취소했던 행사나 모임을 옛날처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문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이정운(16), 이용호(19), 오동수(20), 이해덕(23), 최고현(27), 박광일(31), 배창수(35), 허수호(37) 상임부회장들과 박주영 간사께 고마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금년 회보 발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제가 놓쳤거나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실 차기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구고 총동창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속하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길 희망합니다.

”

2023년 계묘년 11월에 회보를 발간하면서, **총동창회장 곽 동 판**



**곽 동 판** (16회)

대구고등학교  
제24대 총동창회장

“



**임 경 구** (20회)

대구고등학교  
재경동창회장

제작년(2021년) 12월 겨울,  
자랑스런 재경동창회장을 맡기로 하였으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관계  
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모교답게, 재경회장을 역임한 선배님들이 재경동창회 고문단을  
결성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회장단 기수인 20회 동기들  
의 단합된 노력으로 지금까지 재경동창회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몇 년간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를 하나하나 부활하였습니다. 애당회를 필  
두로 산악회, 골프달구회 등을 활성화 하였고, 기수별 모임도 활성화하여, 마  
침내 ‘2022년 대고인의 밤’을 성황리에 끝낸 후의 감격은 너무나 벅찼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모든 행사를 완전히 부활하여 재경동창회 활동을 정상화  
한 것입니다.

물론, 대구의 광동판 총동창회장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체육대회, 골프대회 등  
큰 행사를 훌륭히 치러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총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자랑스런 야구부가 봉황대기 야구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하  
여 모교의 위상을 드높히고 대고인의 자부심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경동창회장직을 마무리하고 후배 기수인 21대에게 넘어갑니다. 모교의 더  
큰 발전과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광동판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제21대 재경동창회장 **임 경 구**

”

“

존경하는 대구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2022.9.1.자로 모교 제26대 교장으로 부임한 24회 김현우입니다.  
총동창회 간행물 ‘達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동판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교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022학년도부터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로 선정되어 AI 융합교육실 구축, 상상제작소 운영, 전 교실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전 학생 크롬북 지급 등 AI융합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본관동 교실 출입문 및 창호 교체,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숙사도 다시 운영하여 학업역량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강호로 자리잡은 야구부는 올해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교의 전 교직원들은 총동창회의 후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교의 지난 성과를 계승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창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구고등학교장 24회 **김 현 우**

”



**김 현 우** (24회)  
대구고등학교장



**우동기 (12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나에게 대구고등학교란?**

A. 동창회 행사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건배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모교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은 바로 '대배반죽'입니다. 바로 '대고를 배반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이죠.

**살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 있었던 순간을 몇가지 소개하신다면?**

A.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지금 돌아해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아내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아내를 만나 결혼한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이름이 익숙치 않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문님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올해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고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펼쳐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문님은 영남대 교수에서 총장, 대구시 교육감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거쳐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까지 오르시면서 우리 대구고등학교 동문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대고인 대상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성공가도를 달리시는 비결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성공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달리 특별한 비결이 있기가 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항상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나가다 보니 아직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문님은 12회로서 아마도 동기분들 대부분은 퇴직하신 연령대이신데도 아직까지 열정적으로 현직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이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텐데요,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비결은 무엇인지요?

A.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건강 비결은 바로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잔다고,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든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잘 잡니다. 행사를 다니는 중간 중간 차안에서도 잘 자고 심지어 점심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도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렇게 눈을 붙이고 나면 몸이 훨씬 개운해지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이 가장 큰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탐방팀은 2023. 11. 3. 09:00 호텔 수성에서 대구고등학교 16회 동문인 안철상 대법관을 만났다. 안 동문은 전날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격려방문을 마치고 호텔 수성에서 숙박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격려방문을 위해 떠나려고 하던 중이었다.



**안 철 상** (16회)  
대법관

**나에게 대구고등학교란?**

A. 저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초계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졸업 시까지 시골에서 지내다가 대구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도시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움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를 다닌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3년은 저의 인생의 좌표를 정한 시기였고, 또한 저의 가치관을 형성한 시기였습니다.

**나의 인생모토(신조)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A. 법조인으로서 ‘균형’을 삶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저울을 뜻하고 저울은 균형을 뜻합니다. 법관으로서 재판을 할 때는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다방면에서 출중하신 분입니다.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농사방법과 조세정책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창출하였으며, 그 밖에 군사,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식견을 가지신 분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존경하는 분은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모셨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입니다. 이 대법원장님은 법조인으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추셨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고 계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을 소개한다면?**

A.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재판을 잘 했다고 법관이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로부터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진심이 담긴 감사의 손 글씨 편지를 저에게 보내온 때가 있는데, 이때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문님은 평생을 사법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데, 사법부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신다면?**

A.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법적 평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고 있고, 재판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등에서도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사법부로서도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문님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일반 판사와 달리 대법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대법관은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의 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내린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고 일반 법원의 모든 법관들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므로, 대법관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구체적인 법을 최종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Justice'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이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대법관은 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의의 실현은 정의로운 법의 존재가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님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무려 40년을 사법부에서 한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이나 대형 로펌으로부터 유혹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판사로서 외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A. 평소 법관을 천직으로 삼고 한 길로 매진해왔기 때문인지 외부로부터 제의나 요청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 받은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법관직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21세기는 아이디어의 시대이고 시대에 맞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상력은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기어 중립 상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조인들은 소송업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개척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큰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개척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큰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문님은 긴 판사생활 동안 유독 대구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는데요. 대구 출신으로서 좀 아쉬지는 않았는지요?

A. 저는 판사로 임관 당시 대구를 희망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지원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로 임명되어 진주에서 근무하다가 그 후 대구에서 근무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생 시절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제 아내가 자기의 고향인 부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고, 이번에 대구법원을 격려방문하게 된 것도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A. 저는 금년 말 기준 법관으로 37년 10개월,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을 합하면 40년 가까이를 사법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 평생을 사법부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자유의 몸이 되면 어떠할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우선은 바캉스를 즐기려고 합니다. 바캉스의 의미는 '비움' 이고, 따라서 계획도 비우는 것이 진정한 바캉스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박철호 (25회)**  
공군군수사령관

**나에게 대구고등학교란?**

A. 저는 전투조종사입니다. 전투조종사에게 하늘이 일터요 싸움터이자 요람인 것처럼 나에게 대구고등학교는 모교의 의미를 넘어 전투조종사로서,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해준 요람이자 정서적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고등학교 시절 선배님들로 부터 배운 “의리! 박력!”이 밑거름이 되어 전투조종사에게 요구되는 정의, 충정, 애국애족, 살신성인 등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 같다.

**인생모토, 존경하는 인물?**

A. 내 고향은 성주다. 마루에 앉아 있으면 가야산 꼭대기 바위산 전경이 보이던 곳이었는데,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토다.  
이순신 제독을 가장 존경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即生 必生即死)의 마음가짐은 군인으로서 가장 귀감이 되며 전투조종사로서 39년간을 살아온 나의 각오와도 같은 말이기도 하다.

**살면서 행복하거나 보람있던 순간?**

A. 아내를 만나고 사랑스런 자식들이 태어나 가정울

이룬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39년의 군생활 동안 많은 조직을 이끌었는데, 특히 육,해,공을 아우르는 근무경력이 있었다.장점들을 따고 나의 경험을 녹여서 얻은 나의 리더십을 퓨전리더십이라 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부하들을 성과있게 이끌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

**나의 미래?**

A. 나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발전한다는 신념이 있다. 늘 배우고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제 39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막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크게 2가지를 생각 중이다.  
첫번째는 군경력을 바탕으로 항공작전, 전투계획, 리더십 등의 전문가로서 교수직을 꿈꾸고 있다.  
두번째는 K-방산의 발전을 위해 방산, 물류산업에 한몫을 하여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산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군수사령부와 사령관의 역할은?**

A. 공군 전투력의 원동력인 군수사령부는 최첨단 전투기와 감시기, 국산기, 방공무기, 전자전 및 항법 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기체계에 대한 최상의 군수지원과 창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군의 무기체계들이 결함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용과 정비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령관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이를 위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전투조종사로서 하늘은 나는 기분은?

A. 39년간 전투조종사로 근무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은 감히 표현이 어려울 만큼 황홀한데, 차량운전과 비교하자면 차는 제한된 감각을 활용하여 2차원에서 기동한다면, 전투기는 3차원 공간을 온몸의 감각으로 누비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높여 그야말로 초감각으로 몰입하여 3차원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말초신경 끝까지 찌릿하며 비행과 임무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로지 무념무상 상태에서 비행 임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군인이 된 계기는?

A. 고향 성주 상공에는 전투기들이 자주 저공비행하곤 했다. 막연한 마음에 하늘을 날고싶다, 저 전투기에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늘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전투조종사에 대한 이플림이 생겼다. 고등학교 시절 사관학교 생도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홍보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때 사관학교를 가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에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로 했고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김 병 삼** (26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나에게 대구고등학교란?**

A. 한마디로 대구고등학교는 너에게 「최고 Pride」이다. 영천에서 유학 온 촌놈에게 최고의 자긍심이자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팔공산 구름 위에 높이~~'로 시작되는 교가를 힘차게 부를 때마다 항상 가슴 뭉클함과 뜨거움을 안겨준 존재였다. 그리고 박력, 패기로 하나 되는 동문간 끈끈함과 의리는 공직생활 내내 대구고 동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고 있다.

**나의 인생 모토(신조)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A. '我既於人(아기어인)에 無惡(무악)이면 人能於我(인능어아)에 無惡哉(무악재)라' 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다.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선하게 대하라는 교훈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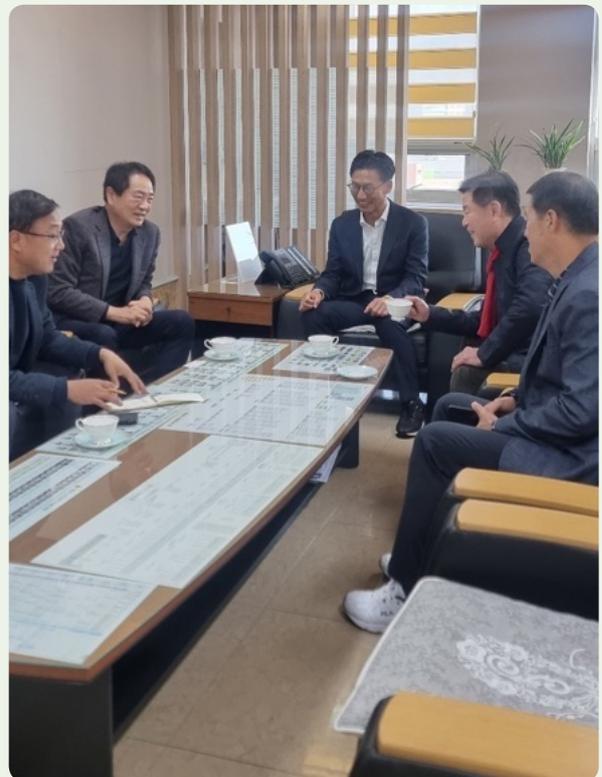
**살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 있었던 순간을 몇가지 소개한다면?**

A. 돌이켜 보면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기획 과장으로서 VIP를 모시고 성공적으로 마쳤고 20년 동안 표류하던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

한 공로로 경상북도 MVP상도 받았다. 또한 과장 시설에는 직접 뛰면서 고향 영천에 산업부 공모사업인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과의 천연염색연구원도 유치하였고 영천 부시장으로서 투자선도지구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 관련사업 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투표한 「베스트 실국장」에 3번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A. 1996년 지방고등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이철우 지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방공무원 으로서는 모든 분야를 다 거쳐 이 자리까지 오는 행운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지금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지역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것 같다. 청장으로서 경자구역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하면서 입주기업들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여기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더불어 향후 기회가 된다면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뒤 올해 7월 대구경북경제자유청장이 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A.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내 현재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총 8개지구(대구4, 경북4), 558만평이 지정되어 개발, 분양 중에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31건, 1,073백만 불(MOU기준)과 국내기업 811건, 5조 6천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핵심전략산업인 ICT·로봇·의료·바이오·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구별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 규제특례를 통하여 최고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요에 대응하여 3개 지구 추가확장과 5개 지구에 대한 신규지정도 추진하여 명실공히 대구경북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 예상된다.



대구·경북에 많은 동문님이 공직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 동료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A.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업무를 나의 일,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눈빛부터가 달라진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 되는 것이다. 보통 보고서나 업무에 대해 질문하면 한번쯤은 대답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대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최소 세 번까지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0%이다. 공직에서 남들보다 10%는 더 솔선수범하고 10% 더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 1인 1구좌 1만원의 행복 상록수회에 가입하면 즐거워집니다.

## ● 상록수회란? (근거:총동창회칙 제24조)

고교평준화 정책과 맞물려 모교 소재 지역발전의 낙후와 모교 진학생 학력저하로 대구시내 최저 수준에 머물렀던 모교가 제2도약을 위해 자율형 공립 고교로 변신하였으나, 우수학생유치 등 경쟁에서 사립 고교에 비해 절대 불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후배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진 곳이다.(2012.9월 250명으로 창립)

## ● 회원 가입방법은?

### 1. 직접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 우리은행 1005-802-382156J
- 대구은행 505-10-134743-0J
- 예금주 대구고등학교총동창회(상록수회)

### 2. 총동창회에 신청하는 방법

가입신청서(캘린더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로 송부

- 우편: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173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 (우42416)
- 팩스: 053-622-1497 • 이메일: daego@hanmail.net
- 전화로 신청가능: 053-622-9580

## ● 2023년도 기수별 상록수회 현황

(1구좌 1만원) 2023. 10. 31.

기수	2023 가입 구좌수 (1구좌1만원)	2023 가입인원	기수	2023 가입 구좌수 (1구좌 1만원)	2023 가입인원
1	11	7	22	16	13
2	14	13	23	41	28
3	7	4	24	16	12
4	2	1	25	7	7
5	12	10	26	11	11
6	15	13	27	22	21
7	5	4	28	5	5
8	12	11	29	3	3
9	10	8	30	15	15
10	29	25	31	16	16
11	3	3	32	4	4
12	4	4	33	1	1
13	53	47	34		
14	26	21	35	5	5
15	30	12	36	3	3
16	111	88	37	3	2
17	41	29	38	2	2
18	6	5	39		
19	22	21	40	2	2
20	7	5	41	2	1
21	22	19	42	1	1
계			617		502

● 모교 지원현황

2023. 10. 31.

년도	구분	지원 내역	금액(원)	년도	구분	지원 내역	금액(원)			
2012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33,700,000	2019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58,120,960			
		장학교실운영비	56,213,520			장학교실운영비	13,56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176,191,200			모교운동부	25,000,000			
		운동부 지원비	15,000,000			교육환경개선 (독서실의자)	17,490,000			
		<b>소계</b>	<b>281,104,720</b>				<b>소계</b>	<b>203,282,960</b>		
2013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29,589,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64,112,000			
		장학교실운영비	89,193,000			운동부 지원비	17,00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75,028,750			교육환경개선 (학교간판)	8,000,000			
		운동부 지원비	16,256,750					<b>소계</b>	<b>203,282,960</b>	
		<b>소계</b>	<b>193,810,750</b>				<b>소계</b>	<b>203,282,960</b>		
2014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28,429,000	2020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34,133,120			
		장학교실운영비	72,970,000			장학교실운영비	7,62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69,487,000			모교운동부	25,000,000			
		운동부 지원비	17,000,000		모교학습지원비	27,504,000				
		<b>소계</b>	<b>170,886,000</b>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운동부 지원비	15,000,000			
장학재단	장학금	28,069,600	교육환경개선 (모교아트월)			5,86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43,580,000					<b>소계</b>	<b>115,117,120</b>	
		<b>소계</b>	<b>117,609,600</b>				<b>소계</b>	<b>115,117,120</b>		
2015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28,069,600		2021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41,000,000		
		장학교실운영비	45,960,000				장학교실운영비	9,86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43,580,000	모교운동부			20,000,000			
		운동부 지원비	4,770,000	모교학습지원비		21,785,000				
		<b>소계</b>	<b>117,609,600</b>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운동부 지원비	20,000,000			
장학재단	장학금	69,127,040				<b>소계</b>	<b>112,645,000</b>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42,098,670					<b>소계</b>	<b>112,645,000</b>	
		<b>소계</b>	<b>182,274,110</b>			<b>소계</b>	<b>112,645,000</b>			
2016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69,127,040	2022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54,500,000		
		장학교실운영비	71,048,400				모교운동부	20,00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42,098,67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38,485,000			
		운동부 지원비	7,000,000			운동부 지원비	15,000,000			
		<b>소계</b>	<b>182,274,110</b>					<b>소계</b>	<b>127,985,000</b>	
2017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60,039,200		2023 년도 10월말 까지	장학재단	장학금	43,000,000		
		장학교실운영비	61,703,400				모교운동부	22,875,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51,220,000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37,055,000		
		운동부 지원비	6,500,000				운동부 지원비	28,732,400		
		<b>소계</b>	<b>172,962,600</b>						<b>소계</b>	<b>131,662,400</b>
2018 년도	장학재단	장학금	71,181,760			<b>소계</b>	<b>131,662,400</b>			
		장학교실운영비	13,300,000			<b>소계</b>	<b>131,662,400</b>			
	상록수회 및 총동창회	모교학습지원비	56,545,000			<b>소계</b>	<b>131,662,400</b>			
		운동부 지원비	41,719,500			<b>소계</b>	<b>131,662,400</b>			
		<b>소계</b>	<b>195,996,260</b>			<b>소계</b>	<b>131,662,400</b>			
		<b>소계</b>	<b>195,996,260</b>			<b>소계</b>	<b>131,662,400</b>			

# 2023년 상록수회원 명단

2023. 10. 31.

가수	성명	가수	성명	가수	성명								
1	김중제	6	김완섭	10	김종석(3)	13	박종대	14	김태식	16	김경수	16	이동형
1	신한익(3)	6	김재수	10	박일환(3)	13	백대일	14	류정수	16	김경식	16	이명수
1	심재태	6	박병휴	10	박철하	13	백춘흠	14	문혜강	16	김국동	16	이명우(2)
1	안인욱	6	박상언	10	박효달	13	서경수	14	박상원	16	김무원(2)	16	이민구
1	이원순	6	성진용	10	배충근	13	서상진	14	박재영	16	김상태	16	이병하
1	장국현(3)	6	신상기	10	서현교	13	석호덕	14	손석수	16	김영건	16	이성창
1	장주호	6	장서규(3)	10	송봉수	13	설수영	14	안문영(3)	16	김영탁	16	이승한
2	강완진	6	최상진	10	안정복	13	송승호	14	양근식	16	김우기	16	이양직
2	구덕조	6	최재홍	10	이원화	13	송인열	14	은덕수(3)	16	김중곤	16	이영로
2	구자철	6	황진업	10	이인영	13	예철해	14	이동한	16	김철수	16	이용재
2	권용근	7	강종원	10	이진식	13	옥무석	14	이상철	16	김현규	16	이용중
2	김효일	7	정만진	10	이진호	13	우상갑	14	이순진	16	김호영	16	이재익
2	남승철	7	허록(2)	10	임현영	13	유영구(3)	14	이영효	16	남영주	16	이정운
2	노백무	7	홍종태	10	장대곤	13	이동완	14	이용도	16	남정식	16	이조원
2	백진호	8	강시중	10	장성태	13	이문호	14	이정택	16	도정석	16	이종두
2	서돈수	8	김영창	10	장우동	13	이수동	14	이형근(2)	16	박기수(2)	16	이척희
2	장무웅(2)	8	나중균	10	전병욱	13	이승하	14	정창용	16	박상근	16	이태수
2	장영덕	8	류병렬	10	전재한	13	이용수	14	조진호	16	박영석	16	임창수
2	정승길	8	문귀호	10	정병주	13	이재무	14	최승해	16	박오동	16	장위수
2	한정관	8	오상덕	10	홍성수	13	이재준	15	김영도	16	박원형	16	장정원
3	권오겸(2)	8	윤옥수	11	남웅수	13	이종호	15	김원한	16	박재상	16	정경
3	김재호(2)	8	이기운(2)	11	이병수	13	이형필	15	성위석	16	박준모	16	정운석
3	박태언(2)	8	이우석	11	추점호	13	이호중	15	이경철	16	박준원	16	정원권
3	채희복	8	현성택	12	김세웅	13	임진섭	15	이기광(10)	16	박찬갑	16	정의규(3)
4	김무웅(2)	8	황재석	12	김영석	13	장시원	15	이봉우	16	박희동	16	정척
5	김병판	9	박경구(3)	12	신종태	13	전윤식	15	이재림(10)	16	박희순	16	조강욱
5	김병호	9	박종택	12	채종우	13	정석화	15	조정현	16	방준명	16	조광호(2)
5	김용복	9	백상헌	13	김동욱	13	정연경	15	최상호	16	배영식	16	조성진
5	김찬국	9	이무식	13	김두표	13	정황영	15	최영석	16	백치흠	16	조현걸
5	박병일	9	이상원	13	김오룡(3)	13	조강석	15	최진구	16	송장근	16	주용영
5	박종대(2)	9	장원식	13	김용주	13	조준찬	15	한대곤	16	신기식	16	지용일(2)
5	오윤수	9	전손곤	13	김장희	13	채종호	16	강병진	16	안철상(3)	16	차재욱
5	조중현	9	정동호	13	김종인	13	표정호	16	곽동판	16	양재원(9)	16	최기득
5	조화섭	10	강화석	13	김항재(3)	13	허경	16	곽정동	16	양점용	16	최승범
5	황영호(2)	10	곽승곤	13	박기림	13	현순종	16	구동형(2)	16	오정범	16	하삼수
6	김기범	10	권상열	13	박길환	13	황흥규	16	구원근	16	유승경	16	하상운
6	김대연	10	김봉태	13	박순구	14	권장성	16	권영주	16	유준재	16	하종활(2)
6	김병호	10	김재명	13	박윤훈	14	김일환	16	김건우	16	이동열(3)	16	한창근

2023. 10. 31.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16	허만화(2)	19	문환업	22	송시한	24	박재찬	27	조영창	32	김병렬
16	허성일	19	배장호	22	윤상준	24	윤광모	27	최고현	32	시동훈
16	현종현(2)	19	송재환	22	이경호	24	이성욱	27	최운성	32	이상덕
16	홍경호	19	신기식	22	이구혁	24	이재문(3)	27	홍진규	32	전우찬
16	황종섭	19	이관형	22	이승렬	24	정상희	28	김현호	33	송찬흠
17	곽창섭	19	이병선	22	이우식	24	정치영	28	배대근	35	김봉진
17	김광훈	19	이용호	22	이철우	24	채상철	28	이태원	35	배창수
17	김기륜	19	이정형	22	정헌용	24	홍종인	28	장용석	35	손동혁
17	김인형	19	임기섭	22	정홍수(3)	25	권병철	28	허삼열	35	이규현
17	김전일	19	정국태	22	최현국	25	박연재	29	김승환	35	차양청
17	김중구	19	정선화	22	현정기	25	손경호	29	박광수	36	박경주
17	김현택	19	정수일	23	강봉석	25	이용준	29	박영호	36	장승훈
17	박장식(3)	19	정태정	23	김병민(2)	25	임동권	30	권영민	36	최덕우
17	배종호	19	최부도	23	김성중(3)	25	정동광	30	김경훈	37	백수범
17	변기창	19	최재혁	23	김재환	25	홍종봉	30	김두혁	37	허수호(2)
17	변정환	19	최희동	23	김정구(2)	26	강시원	30	김성진	38	김재훈
17	서경수(2)	19	추재원(2)	23	김창기	26	권봉진	30	김현상	38	라상혁
17	서동선	20	박홍동	23	김희영(2)	26	권영율	30	박숙한	40	강명석
17	신현명	20	배석만	23	박성필(3)	26	권종호	30	박철진	40	신종섭
17	안희영	20	심창보(2)	23	박종문(2)	26	권천규	30	우남경	41	황성윤(2)
17	이광호	20	오동수(2)	23	서해택	26	김기홍	30	우상민	45	조성현
17	이래운	20	이준호	23	석용덕	26	김우진	30	윤영도		
17	이우세(2)	21	권기탁	23	석우창	26	남호찬	30	이상종		
17	이재경	21	권홍구	23	손달원	26	박찬직	30	임대규		
17	이재근(3)	21	김성도	23	송창석	26	채종규	30	임문식		
17	이중운	21	김형수	23	송창익	26	최영규	30	정우창		
17	이한길(2)	21	남형현	23	안승훈	27	권영근	30	채광수		
17	정연태	21	문진규	23	여준규(3)	27	김대연	31	강두완		
17	조강래(3)	21	손지현	23	윤두환(2)	27	김상휴	31	강정훈		
17	최달영	21	이남혁	23	이강득(2)	27	김정안(2)	31	권민		
17	최재복	21	이상도	23	이해덕(2)	27	박경호	31	김교은		
17	최종해(3)	21	이석환	23	장활언	27	백재협	31	김영태	10구좌	2명
17	최창웅	21	이제섭(2)	23	전용태	27	신동혁	31	남철환		
17	홍재표(2)	21	이현호	23	전인배	27	오범식	31	박광일	9구좌	1명
18	박재흥	21	장동수	23	정식원	27	우종웅	31	박석진		
18	백운석	21	정병우	23	정웅기	27	이봉원	31	박영진	3구좌	25명
18	이영환	21	정승일	23	정철화	27	이부일	31	박준석		
18	이장근	21	정희세	23	최두호	27	이상문	31	신승윤	2구좌	39명
18	이종오(2)	21	조영래(3)	23	최은석	27	이신규	31	신재용		
19	김원식	21	채명수	24	김기만	27	이영학	31	엄원길	1구좌	435명
19	김현석	21	한석호	24	김기철	27	이춘식	31	이광수		
19	김홍균	22	김대영	24	김현우(3)	27	전성우	31	이달훈		
19	나현표	22	문경구(2)	24	남용모	27	조남완	31	정동욱	계	617구좌 502명

## 장학기금 출연현황 (기본재산)

연번	장학금명	금액(원)	년도	비고	연번	장학금명	금액(원)	년도	비고
1	1회 동기회	34,700,000	1981		29	동 양	10,000,000	2007	11회 최성해
			2011	졸업50주년기념				30	21세기조선
2	육 성	25,000,000	1982	이성실(1회)	31	4회 김무용	10,000,000	2008	
3	청 구	10,000,000	1985	이원순(1회)			10,000,000	2011	
		5,000,000	2015				10,000,000	2012	
4	백 삼	10,000,000	1985	심재태(1회)	32	18회 동기회	20,000,000	2009	졸업30주년기념
5	평 화	10,000,000	1990	김종석(10회)	33	19회 동기회	20,000,000	2009	졸업30주년기념
6	보 우	10,000,000	1990	김재식(1회)	34	20회 동기회	20,000,000	2010	졸업30주년기념
7	유 성	10,000,000	1990	김유현(7회)	35	동 창 회	103,325,832	2007	모교사랑
8	사우회	2,000,000	1991					2009	후배 사랑 및 잉여금
9	11회 동기회	26,017,626	1991		36	21회 동기회	20,000,000	2011	졸업30주년기념
10	6회 동기회	20,000,000	1996	졸업30주년기념	37	2010~2011년 총동창회	10,000,000	2011	
		10,000,000	2004		38	장학재단 잉여금	20,000,000	2011	
		10,000,000	2016	졸업50주년기념	39	재경동창회	233,881,350	2012	
11	9회 동기회	10,000,000	1999	졸업30주년기념	40	22회 동기회	10,000,000	2012	졸업30주년기념
		10,000,000	2019	졸업50주년기념	41	2회 동기회	10,000,000	2012	졸업50주년 기념
12	16회 동기회	20,000,000	2000		42	31회 동기회	2,000,000	2012	은사의 밤
			2006	졸업30주년기념	43	12회 신장철	10,000,000	2013	
13	10회 동기회	10,000,000	2000	졸업30주년기념	44	10회 김석우	10,000,000	2013	
		10,000,000	2020	졸업50주년기념	45	9회 김영진	10,000,000	2013	
14	23회 동기회	5,000,000	2004	은사의 밤	46	8회 오대희	1,000,000	2013	
		20,000,000	2013	졸업30주년기념	47	대삼동기회(3회)	50,000,000	2014	졸업50주년기념
15	24회 동기회	5,000,000	2004	은사의 밤	48	12회 우동기	10,000,000	2014	
		20,000,000	2014	졸업30주년기념	49	4회 동기회	20,000,000	2014	졸업50주년기념
16	뉴욕동창회	10,000,000	2005		50	23회 이해덕	10,000,000	2015	
17	15회 동기회	10,000,000	2005	졸업30주년기념	51	5회 동기회	10,000,000	2015	졸업50주년기념
18	25회 동기회	5,000,000	2005	은사의 밤			20,000,000	2016	
		20,000,000	2015	졸업30주년기념	52	21회 김승현	10,000,000	2016	
19	17회 동기회	10,000,000	2006		53	16회 최문종	1,000,000	2016	
		20,000,000	2007	졸업30주년기념			1,000,000	2017	
20	영 백	100,000,000	2007	6회 성진용	54	26회 동기회	10,000,000	2016	졸업30주년기념
21	동 우	100,000,000	2007	6회 이낙토	55	7회 동기회	30,000,000	2017	졸업50주년기념
22	6회 양해경	20,000,000	2007		56	27회 동기회	20,000,000	2017	졸업30주년기념
23	7회 한용외	20,000,000	2007		57	29회 동기회	15,000,000	2019	졸업30주년기념
24	웨어핀인터내셔널	50,000,000	2007	9회 권기찬	58	역사관기금	34,100,000	2020	역사관건립기금
25	9회 하수길	20,000,000	2007		59	1회 이동용	100,000,000	2021	
26	14회 정수홍	30,000,000	2007		60	2회 정성휘	200,000,000	2022	
27	20회 홍순일	20,000,000	2007		<b>장학기금 합계</b>		<b>1,914,024,808</b>		
28	동 진	50,000,000	2007	8회 강동석					

## 단체(개인)별 장학금 기부현황 (보통재산)

### 재경동문회

년도	금액(원)	비고
2007	1,500,000	서울대 등 성적우수장학금
2008	1,000,000	우수졸업생 장학금
2009	1,000,000	명문대 합격자(2명)
2010	1,000,000	명문대 합격자(2명)
2011	1,000,000	명문대 합격자(2명)
2016	5,000,000	야구부 장학금
2017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2018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2019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2020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2022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2023	10,000,000	야구부 장학금

### 고시달구회

년도	금액(원)	비고
2007	4,933,800	성적우수 학년별(1명)
2008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09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0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1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2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3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4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5	5,081,760	문과3학년 등록금(3명)
2016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17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18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19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20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21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22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2023	5,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5명)

### 우영장학회(11회 남웅수)

년도	금액(원)	비고
2011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2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6	1,7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7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8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9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20	1,693,9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21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 각1명)
2022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 각1명)
2023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 각1명)

### 해정장학회(16회 장시호)

년도	금액(원)	비고
2007	1,644,60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0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1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2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3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4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5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6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7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8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19	1,693,920	개교기념일 장학금(1년 등록금)
2020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각1명)
2021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각1명)
2022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각1명)
2023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문이과각1명)

### 41회 황성윤 장학금

년도	금액(원)	비고
2022	2,000,000	취약계층 재학생(4명)
2023	1,000,000	취약계층 재학생(1명)

## 단체(개인)별 장학금 기부현황 (보통재산)

### 학포장학회(15회)

년도	금액(원)	비고
2007	3,000,000	성적우수, 가계곤란
2008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2009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2010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1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2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3	4,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2014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5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6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7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8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9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0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1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2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3	3,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 17회 동기회

년도	금액(원)	비고
2007	1,644,600	가계곤란 베드민턴부 (1년 등록금)
2008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09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0	1,6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2011	1,6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2012	1,6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2013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4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5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6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7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8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19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0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1	1,5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3명)
2022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2023	2,000,000	개교기념일 장학금 (4명)

### 대구고 달서구 동문회(대달회)

대구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있는 동문들 친목도모를 위해 2013년 결성하여 현재 약50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초창기에는 지역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모임

년도	금액(원)	비고
2013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4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5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6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7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8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19	7,002,000	개교기념일 장학금(년간수업료 5명)
2020	5,000,000	프라이드 대고인 장학금
2021	5,000,000	프라이드 대고인 장학금
2022	3,000,000	프라이드 대고인 장학금
2023	3,000,000	프라이드 대고인 장학금

### 청목회

19-20대 총동창회 회장단과 일부 뜻있는 동문들이 모교 재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후임 총동창회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

년도	금액(원)	비고
2016	40,000,000	모교지원사업
2017	40,000,000	모교지원사업
2018	32,000,000	모교지원사업
2022	45,000,000	모교지원사업
2023	30,000,000	모교지원사업

## 단체(개인)별 장학금 기부현황 (종료)

출연자	기부금(원)	기부일자	비고	출연자	기부금(원)	기부일자	비고	
4회 동기회	1,000,000	2007	성적우수,가계곤란(2명)		1,693,920	2011	개교기념일 장학금	
소계	1,000,000				1,693,920	2012	개교기념일 장학금	
18회 동기회	1,500,000	2007	성적우수,가계곤란		1,693,920	2013	개교기념일 장학금	
	5,000,000	2011	개교기념일 6명 장학금	16회 동기회	1,693,920	2014	개교기념일 장학금	
	5,000,000	2012	개교기념일 6명 장학금		1,693,920	2015	개교기념일 장학금	
	2,000,000	2013	개교기념일		1,693,920	2016	개교기념일 장학금	
	2,000,000	2014	개교기념일 2명 장학금		1,693,920	2017	개교기념일 장학금	
	1,000,000	2015	개교기념일 2명 장학금		1,693,920	2018	개교기념일 장학금	
소계	16,500,000				1,693,920	2019	개교기념일 장학금	
26회 이흥인	5,000,000	2008	야구부 장학금	소계	15,245,280			
소계	5,000,000			재경동창회 (아너스클럽)	45,000,000	2013		
7회 이춘성	400,000	2008	장학금		45,000,000	2014		
소계	400,000				50,000,000	2018		
모교사랑 후배사랑	12,669,000	2008	127명		50,000,000	2016		
	12,969,370	2009	130명	소계	190,000,000			
	199,520	2010		16회 최문종	1,000,000	2018		
소계	25,838,650			1,000,000	2019			
(췌)서방	7,200,000	2008	장학금(월90만원)	소계	2,000,000			
	9,000,000	2009	장학금(월90만원)	8회 동기회	10,000,000	2018	졸업50주년 기념	
	1,800,000	2010	장학금	소계	10,000,000			
소계	18,000,000			28회 동기회	15,000,000	2018	졸업30주년 기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동문회	500,000	2007	기량우수 야구부원	소계	15,000,000			
	500,000	2008	1분기 장학금	23회 이해덕	10,000,000	2018		
	500,000	2009	개교기념일 장학금		10,000,000	2022		
	500,000	2010	개교기념일 장학금		소계	20,000,000		
	500,000	2011	개교기념일 장학금		30회 동기회	10,000,000	2022	졸업30주년 기념
	500,000	2012	개교기념일 장학금		소계	10,000,000		
소계	3,000,000			포항 10회 동기회	1,200,000	2009	개교기념일 장학금	
포항 10회 동기회	1,200,000	2010	개교기념일 장학금		1,200,000	2010	개교기념일 장학금	
	1,200,000	2011	개교기념일 장학금		1,200,000	2011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2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2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3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3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4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4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5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5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6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6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7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7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8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8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9	개교기념일 장학금	1,600,000	2019	개교기념일 장학금		
소계	16,400,000			소계	16,400,000			
				52회 이솔로몬 팬카페 솔로몬스타	5,000,000	2022	조손,한부모가정 재학생 (10명)	
				소계	5,000,000			
				23회 동기회	10,000,000	2023	졸업40주년 기념	
				소계	10,000,000			
				31회 동기회	10,000,000	2023	졸업30주년 기념	
				소계	10,000,000			
				32회 김영만	10,000,000	2023		
				소계	10,000,000			

## 2022 ~ 2023학년도 주요연혁

- 2022. 1. 4. 제62회 졸업식(265명, 누계 32,519명)
- 2022. 2. 18. 인공지능(AI)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 2022. 3. 2. 제65회 입학식(188명)
- 2022. 3. 4. 본관동, 도서관동 외벽 대수선 및 각실 출입문 창호 교체
- 2022. 8. 9. MS주체 IT경진대회 이매진컵 주니어 TOP3 선정
- 2022. 8. 26.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장려상(박\*민)
- 2022. 9. 1. 제26대 김현우 교장 취임
- 2022. 11. 15.~16. 드림챌린지! 진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서울)
- 2023. 2. 3. 제63회 졸업식(졸업생 205명, 누계 32,724명)
- 2023. 3. 2. 제66회 입학식(224명)
- 2023. 4. 12. 제65주년 개교기념식
- 2023. 6. 4. 2023 SBS 스포츠 Mr. & Ms. KOREA 남자 19세 미만 보디빌딩 1위(3학년 오\*민)
- 2023. 9. 9.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2023. 10. 15.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18세이하부 헤비급(+75kg) 은메달(3학년 오\*민)

### 학교전경



▲ 외벽 대수선. 22. 3. 4.

동창회 장학금 전달

● 2022~2023 동창장학회 장학금



▲ 2022년 7월 동창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2023년 3월 입학식 동창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2023년 4월 제65주년 개교기념식 동창장학회 장학금 수여

학교 시설 정비



▲ 3층 옥외정원 조성 (2022년, 체스 정원)



▲ 3층 옥외정원 조성 (2023. 파라솔 정원)



▲ 실내 창호 출입문 교체(2022년)



▲ 외벽 대수선(2022년)

학교의 자랑



▲ 제51회 봉황대기 전국야구대회 우승 (2023. 9. 9.)

- MS주체 IT경진대회 이매진컵 주니어 TOP3 선정 2022. 8. 9.
- 2023 SBS 스포츠 Mr. & Ms. Korea 남자 19세 미만 보디빌딩 1위(3학년 오\*민) 2023. 6. 4.
-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2023. 9. 9.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18세 이하부 헤비급(+75kg) 은메달(3학년 오\*민) 2023. 10. 15.

학교의 자랑



▲ 1,2학년 주1회 뮤지컬 수업 운영  
(뮤지컬 발표회 장면)



▲ 메타버스로 대구고 사이버 공간 구축(2022)  
(<https://zep.us/play/yB9Pav>)

## 교내외 활동



◎ 2022학년도 기업가정신 및 진로진학 캠프 ▲

2022학년도 기업가정신 및 진로진학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22. 4. 1.(금) 8:30~16:10
- 대 상 1학년 학생 189명
- 장 소 1학년 각 교실

◎ 리더 마인드업 캠프 ▲

2022년 4월 6일 리더 마인드업 캠프를 실시하여 희망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 시융합교육실 개소식 ▲

- 행사명 시융합교육실 개소식
- 일 시 2022. 4. 25.(월) 9:00~9:20
- 장 소 본교 2층 시융합교육실



◎ 교육부 차관과의 미래교육 간담회 ▲

- 행사명 정종철(24회) 교육부차관과 함께 하는 미래교육 간담회
- 대상 학생회 임원 26명
- 일시 2022. 4. 29.(금) 10:00~11:00
- 장소 본교 2층 시융합교육실
- 내용 본교 특색사업 소개, 미래교육 관련 현안 나눔, 선배가 후배에게

정종철(24회) 교육부차관이 교육부 지정 시 융합교육 중심 고교인 모교 대구고를 방문해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 임원들과의 미래교육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정보교육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로의 성장과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자기 리더십, 대인 관계, 인지 학습에 기반을 둔 디지털 소양 함양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이날 정 차관은 시 융합교육 플랫폼과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시 교육활동실에서 미래사회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현장을 둘러본 뒤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과 미래교육 관련 현안 나눔으로 소통하였다.



◎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 아이디어 캠프 ▲

- 행사명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 아이디어 캠프
- 일시 2022. 4. 29.(금)~5. 3.(화) 총 18차시
- 장소 시모듬실
- 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과 융합 아이디어 캠프를 통하여 SW/AI 활용 탐구



◎ 학부모와 함께 하는 1:1진로진학 컨설팅(1학년) ▲

- 일시 2022. 5. 17.(화) 17:30~21:00
- 대상 1학년 45명
- 장소 1학년 교실



◎ 본교 출신 선배와의 만남 및 학과체험 ▲

- 취지 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동기유발 및 진로진학 코칭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통해 모교사랑을 실천
- 일시 2022. 6. 3.(금) 16:30



◎ 고3학생들 MS Imagine cup junior 대회 시상식 참가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최한 세계 최대 규모의 IT경진대회 ‘이매진컵 주니어’ 에서 국내 TOP3에 선정  
2022. 8. 5.(금) 서울 종로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시상식 참가 및 개별 인터뷰 진행



◎ 2022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

- 일시 2022. 10. 27.(수)~29.(금)
- 세종호수공원 수변에서 개최된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1학년 학생 6명이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학교 활동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2022 교내 미니페스티벌 및 비즈마켓 ▲

2022년 10월 30일(일) ~ 11월 8일(화)까지 교내 미니페스티벌 및 비즈마켓이 개최되었습니다. 교과 수업시간 산출물, 동아리 활동 산출물, 아나바다 물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부대행사로 체스왕 선발전,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졌습니다.



◎ 동아리 활동 발표 한마당 ▲

2022년 11월 2일(수) 7교시 동아리 활동 발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방송반, 케미스트리, 공룡능선, 광고마케터, 알고리즘, 푸르게푸르게... 본선에 오른 6개 동아리 학생들과 방송부 학생들, 축제준비 도우미 학생들 모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 2022 PRIDE 인재상 시상 ▲



◎ 나눔실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앞장서 (대구고 학생들 이웃사랑성금 기탁) ◀

교내 비즈쿨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117만 2,500원을 희망 2023년 나눔캠페인을 통해 기부하였다.

# 제 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구고 우승

대구고는 2023년 9월 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세광고를 연장 접전 끝에 3-2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가던 경기는 7회 세광고가 2점을 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9회말, 대구고는 '대타자' 양현종이 극적인 동점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 10회초에서는 삼중살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10회말 공격에서 끝내기 스쿼즈 쓰리번트로 치열했던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 대구고 출신 KBO 신인 3인방 “프로 무대 기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꿈 껴왔던 프로 무대 입성, 꼭 살아남겠습니다.”

2023 KBO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입성한 대구고등학교 출신 투수 이로운·김정운, 내야수 박장민 등 3인방의 다짐은 강렬했다. 지난달 15일 신인드래프트에서 대구고는 3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한 경사를 맞았다. 특히 투수 2명은 1라운드 지명으로 잠재성과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기존 1차 지명과 2차 지명이 통합된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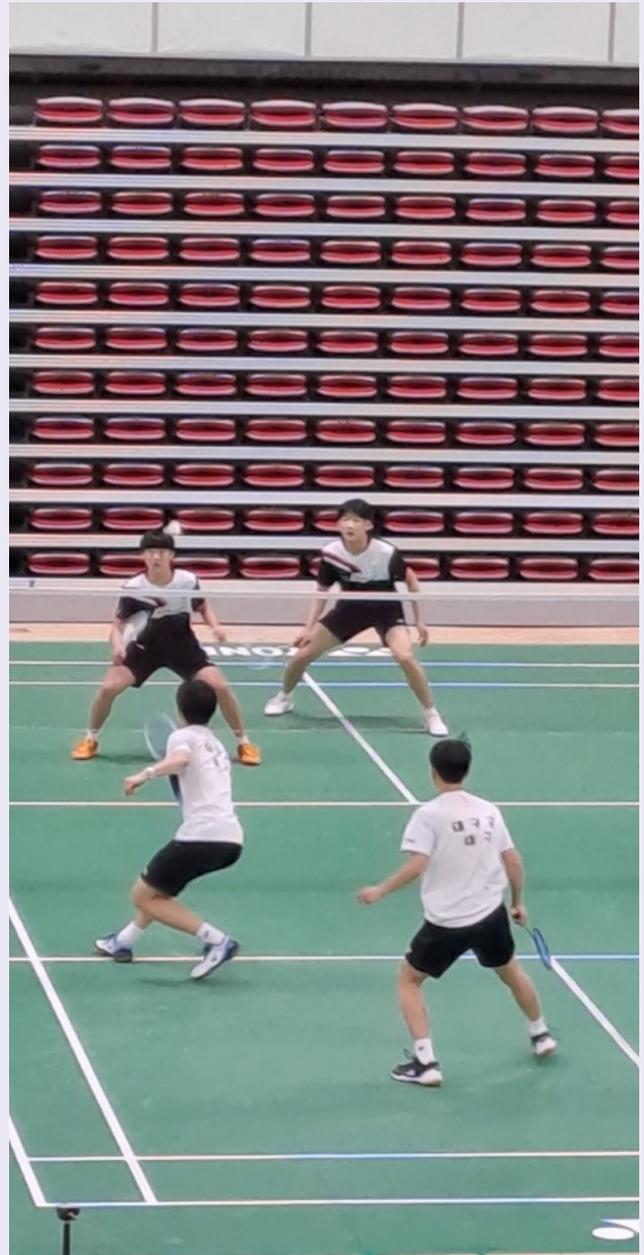


하지만 1라운드 지명은 과거 1차 지명과 같은 의미로, 투수 1라운드 2명 배출은 대구고가 유일했다. 대구고로서는 2004년 내야수 박석민, 2007년 포수 김동명(김동욱으로 개명)이 삼성라이온즈에 1차 지명된 이후 10여 년만의 1라운드 지명 선수 배출이다. 최고 구속 150km 이상의 묵직한 공과 제구가 강점인 투수 이로운은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은 SSG랜더스에 지명됐다. 고교 최고 사이드암 투수로 평가받는 김정운은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지난해 KBO리그 통합우승을 이뤄낸 kt위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유격수를 비롯해 내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한 내야 유틸리티 자원 박장민은 10라운드 전체 98번으로 삼성에 입단했다. 각 구단과 입단 계약 등 각자의 일정을 마치고 이들은 6일 대구고 야구장에 모였다. 올 시즌 고교리그에서 2승 2패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 빠른 공과 제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로운은 “김광현, 추신수 선배까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 SSG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겠다”며 “무엇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은 늘 해왔기에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성적은 12승 1패 평균자책점 1.16으로 고교 최고의 사이드암 투수로 떠오른 김정운 역시 “kt 이강철 감독님과 (같은 사이드암 투수인) 고영표 선배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프로 지명을 받고 지금은 러닝과 웨이트를 중심으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준비중”이라고 했다. 올해 삼성의 선택을 받은 내야수 박장민의 각오는 남다르다. 삼성엔 ‘국민 유격수’ 박진만 감독 대행은 필두로 김지찬과 신인 이재현, 다시 유격수 포지션으로 바꾼 김상수, 이적생 오선진까지 내야 뎁스가 두터워진 상황에서 박장민은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실정. 박장민은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삼성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 안정적인 수비와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어떤 공이 오더라도 제 스윙을 할 수 있는게 저의 장점”이라며 “김상수 선배에게 많이 배우고 싶다. 또한 박진만 감독 대행님이 선수시절부터 늘 강조한 수비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훈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월까지 각자의 학업과 개인 훈련들을 병행한 후 각 구단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팀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손경호 대구고 감독은 “2016년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1라운드 지명 선수를 2명이나 배출하게 돼 뿌듯하다. 선수들 모두 자신은 물론이고 열심히 해왔으며 승부욕도 강하다. 3명 모두 각자의 팀에서 잘 적응해 한국 프로야구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매일신문(2023.10.16.)

# 배드민턴부

2021 전국체육대회 혼복고등부 은메달(임한빈)  
2022 협회장기대회 남고단식 8강진출(김정영)  
2023 협회장기대회 혼복고등부 16강진출(최승완)



# 2022년 정기이사회

## ◎ 2022년 정기총회

2022년 1월초에 취임한 광동판 제24대 총동창회장은 2월초에 예정된 정기총회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면으로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의결사항〉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 ◎ 2022년 정기이사회

2022년 11월 8일 대구고 역사관 1층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여 2022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초에 2022년 정기총회를 문서로 대체하고 난 후라 광동판 총동창회장 취임하고 24대 집행부 발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운 회의였다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에 이어 국민의례 ,참석하신 동문 소개, 회장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었으며 2022년도 앞으로 총동창회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기타 공지 사항이 있었고 동문 간의 더욱 돈독한 총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참가자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 2022 대고인의 밤 개최

아! 얼마나 기다렸던 행사인가?

코로나 만연으로 3년 만에 2022년 12월 7일에 대고인의 밤 행사를 라온제나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서울, 부산 각 지역 동문회 대표님을 비롯하여 약 400여 명 동문이 참여하였습니다. 광동판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고 관례에 따라 대고의 명예를 드높인 14회 정수홍 동문이 “대고인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회 동문인 이솔로몬 가수가 무



대에 올라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행사 뒤에 건배 제의 시간에 광동판 회장이 재미있는 건배사를 소개했습니다.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대고에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는 의미로 “소취하 대취평”을 외쳤으며 참석한 동문의 우렁찬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전달할 이야기 하나는 제2회 동문인신 정성휘 선배님이 우리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에 장학기금으로 2억을 기부하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동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진행 요원으로 광동판 회장 이정운 총괄부회장 이용호 선임부회장, 오동수 이해덕 최고현 박광일 배창수 허수호 상임부회장이 각자 맡은 바 업무인 기념품 배부, 외부 손님 안내, 내빈 자리 안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솔로몬(52회) 가수가 2부가 시작되면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솔로몬 팬카페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이솔로몬 가수의 흥겨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간간이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 무르익어 갔습니다.

## [시상 내역]

감사패 (장학기금 기탁)	고시달구회, 대달회, 11회 남웅수, 학포장학회, 16회 장시호, 17회 동기회, 23회 이해덕, 41회 황성윤, 이솔로몬 팬카페 솔로몬스타
공로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대 총동창회장 15회 이재림</li> <li>• 졸업40주년 주관기수 22회 (회장 서정천, 총무 배구주)</li> <li>• 졸업30주년 주관기수 30회 (회장 윤영도, 총무 이상민, 추진위원장 김학진)</li> </ul>
우수 동기회상	최우수상 16회 동기회, 우수상 24회, 26회 동기회
대고인대상	14회 정수홍



# 2023년 정기총회

2023년 2월 15일(수) 오후6시 대구고 역사관 1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 3년여 만에 열리는 정기총회로 성원 보고에 이어 참여하신 동문님 소개, 국민의례, 회장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업무보고로 2022년도 사업 경과보고, 장학회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상정 및 심의로 2022년 결산(안) 승인의 건, 장기미납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공지 사항으로 동문 간의 더욱 돈독한 총동창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상록수회 후원자가 되어주길 부탁하며 가입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가 제창과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 [ 의결내용 ]

### 1 2022년 결산(안) 승인

2022년 결산 총괄내역 (2022. 1. 1.~12. 31.)

#### ■ 수입

(단위: 원)

과목 관	항	2022 예산	2022 결산	2022 장학회 예산		2022년 장학회결산	비고
	<b>동창회운영</b>	<b>358,023,907</b>	<b>320,819,214</b>	<b>계</b>	<b>124,800,000</b>	<b>1,944,038,250</b>	
	전기이월	130,213,907	130,213,907	전기이월	34,300,000	1,751,135,261	기본재산 1,714,024원 신규편입
	동창회비	109,700,000	71,400,000	기본재산수입이자	15,000,000	27,252,018	
	상록수회비	90,050,000	89,844,722	보통재산수입자		4,761	
	행사회비	13,900,000	7,700,000	보통재산수입(목적기부금)	73,500,000	64,000,000	
	후원금	3,000,000	16,000,000	보통재산수입(재산증자)		100,000,000	
	잡수입	11,160,000	5,660,585	국세환급	2,000,000	1,646,210	

#### ■ 지출

(단위: 원)

과목 관	항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2022년 장학회 예산		2022년 장학회결산	비고
	<b>동창회운영</b>	<b>358,023,907</b>	<b>320,819,214</b>	<b>계</b>	<b>124,800,000</b>	<b>1,944,038,250</b>	
	일반사무비	62,755,000	56,179,270	관리운영비	4,200,000	2,722,360	
	일반사업비	82,000,000	71,457,600	법인세, 지방소득세	2,000,000	7,213,440	
	학교지원사업비	93,000,000	58,885,190	목적사업비	70,000,000	74,500,000	
	예비비	32,000,000	-	예비비	10,000,000	-	
	차기이월	88,268,907	134,297,154	차기이월	38,600,000	1,859,602,450	기본재산 1,814,024,808원 포함

### 2 장기 미납금 결손처분(안) 승인

(단위: 원)

구분	2012년 분담금	2014년 분담금	2017년 대고인의밤	2018년 대고인의밤	2019년 분담금	2020년 분담금	미납금 합계	비고(사유)
9회	2,000,000			400,000			2,400,000	졸업50주년 행사 후 잔여기금 장학회 기부 및 총동창회 공식 부담의무 해제로 사실상 징수 불가
11회				400,000	400,000		800,000	
12회			400,000		400,000		800,000	
건설회		300,000				300,000	600,000	직장별 행사 소멸로 징수불가
공친회						300,000	300,000	
사우회						300,000	300,000	
의사회						500,000	500,000	
계	2,000,000	300,000	400,000	800,000	800,000	1,400,000	5,700,000	

### 3 2023년 예산(안) 총괄내역

2023년 예산 총괄내역 (2022. 1. 1.~12. 31.)

#### ■ 수입

(단위: 원)

과목 관	항	2022 예산	2022 결산	2023 예산	2023년 장학회예산		총합계	비고
					계			
동창회운영		358,023,907	320,819,214	325,977,154	계	1,965,602,450	2,291,579,604	
	전기이월	130,213,907	130,213,907	134,297,154	전기이월	1,859,602,450	1,993,899,604	기본재산 1,814,024,808원 포함
	동창회비	109,700,000	71,400,000	93,200,000	기본재산수입이자	30,000,000	123,200,000	
	상록수회비	90,050,000	89,844,722	70,070,000	보통재산수입(후원금)	74,000,000	144,070,000	
	행사회비	13,900,000	7,700,000	17,900,000			17,900,000	
	후원금	3,000,000	16,000,000	5,000,000			5,000,000	
	잡수입	11,160,000	5,660,585	5,510,000	국세환급	2,000,000	7,510,000	

#### ■ 지출

(단위: 원)

과목 관	항	2022 예산	2022 결산	2023 예산	2023년 장학회예산		총합계	비고
					계			
동창회운영		358,023,907	320,819,214	325,977,154	계	1,965,602,450	2,291,579,604	
	일반사무비	62,755,000	56,179,270	65,663,330	관리운영비	4,200,000	69,863,330	
	일반사업비	82,000,000	71,457,600	122,000,000	법인세, 지방소득세	5,000,000	127,000,000	
	학교지원사업비	93,000,000	58,885,190	73,000,000	목적사업비	89,000,000	162,000,000	
	예비비	32,000,000	-	17,000,000	예비비	5,000,000	22,000,000	
	차기이월	88,268,907	134,297,154	48,313,824	차기이월	1,862,402,450	1,910,716,274	기본재산 1,814,024,808원 포함



## 제9회 달구산악축제 (23. 6. 11.)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달구산악축제를 4년 만에 재개하여

‘우리는 대고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대고인의 향수가 묻어있는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2023년 6월 11일(일) 제9회 달구산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서울/부산/포항,경주,구미 등 전국 동문들 및 가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래킹/주출산 해국사 등반/문경새재 주변관광으로 나뉘어 1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2시 2부행사는 제 9회 달구산악축제 개막을 시작으로 곽동판 총동창회장 개회사, 주요내빈 소개 및 이원순(1회) 고문, 신현국(10회) 문경시장, 우동기(12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현우(24회) 모교 교장의 축사 및 격려사와 임경구(20회) 재경동창회장 인사 그리고 난타 및 지신뱀기 축하공연과 동문 및 가족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최다 참가상: 상금]
- 1위 17회 동기회
  - 2위 16회 동기회
  - 3위 18회 동기회
  - 4위 24회 동기회
  - 5위 19회 동기회

## 제47회 총동창회배 체육대회 개최

2023. 10. 8. 모교 야구장에서 2019년에 46회 대회가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제47회 총동창회장 배 체육대회가 4년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변화시켰듯이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도 이 흐름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제47회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는 주관해야 할 동기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체육대회가 되었습니다. 축하하러 체육대회에 참석해주신 인사로는 1회 심재태 고문, 1회 조영길 대구국립박물관장, 9회 김영진 고문, 10회 신현국 문경시장, 12회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3회 김항재 고문, 20회 임경구 재경동창회장, 22회 이만희 국회의원, 22회 최건 대구시 동구의원, 22회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원장, 24회 김현우 모교교장, 24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 정책국장, 25회 손경호 모교 야구 감독, 25회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26회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다수의 동문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편 체육대회 진행도 기수별 대항전이 아니라 명랑운동회 형태로 단체줄넘기, 용수철 릴레이, 전략 줄다리기, 미니 페널티킥 종목으로 진행했습니다. 간간이 동문 가수와 동문 부인 가수가 흥을 돋우고 참가 동문의 노래자랑과 틈틈이 팔씨름 등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기수별 부스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졸업 후 어떻게 지내왔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종 경기결과로 종합우승 22회, 준우승 30회, 3등 31회가 차지했습니다. 광동관 회장의 시상식을 마치고 모두 일어나 교가를 목청껏 부르며 공식 행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제 47회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1,000여명 동문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 2023년 정기이사회

일시: 2023. 11. 1.(수)

장소: 대구고등학교 역사관 1층

참석자: 총동창회장 곽동판 및 부회장, 각 기수별 회장단으로 30여명

의안 및 의결사항: 차기 제25대(2024-25년) 총동창회장 추천 관련하여 17회 동기회에서 추천한 이한길 동문을 이사회에서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추천을 수용하고 이사회에서 확정된 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토의 후 기타 의견 개진 시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좋은 안들이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1층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전달 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 2023년 고문단 회의

일시: 2023. 11. 8.(수)

장소: 예향 한정식(수성구 희망로 141-1)

참석: 1회 심재태, 1회 이원순, 4회 김연박, 6회 성진용, 8회 강동석, 9회 김영진, 10회 김종석, 13회 김항재 고문 / 총동창회장 16회 곽동판, 총괄부회장 이정운, 차기 총동창회장 내정자 17회 이한길, 선임부회장 19회 이용호 총 12명  
 협의 사항: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하여 또한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후 주기적인 모임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모아 총동창회장의 업무추진에서 조언 요청 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 2023년 동창장학회 정기이사회

일시 : 2023. 11. 15.(수)

장소 : 예향한정식

참석임원 : 이사장 16회 곽동판 / 감사 26회 박찬직, 36회 배근열 / 상임이사 20회 오동수 / 장학이사 6회 성진용, 16회 이정운, 17회 이주락, 19회 이용호, 19회 손상호, 23회 이해덕, 24회 김기철 총 11명

협의사항: 2023년 동창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퇴임 및 선임(임기만료 장학이사) 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3년 사업실적 및 기부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발전과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고, 특히 장학회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좋은 대책을 찾아보기로 하고 정기이사회를 마쳤습니다.



## 대구고 역사관 탐방

### 매년 1학기 초에 신입생 대상

전국 학교 역사관 최초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대구고 역사관은 2019년 건립이후 해마다 모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진로시간에 역사관 탐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교내에 위치한 모교 1, 2회 선배님들의 역사적인 2.28 민주 운동의 상징인 기념탑과 역사관 내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2.28 기념관, 도네이션 월, 대구고 역사 발자취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시간을 가지고 역사관 2층 총동창회 전시물인 디지털 동문검색, 역대교장, 역대 총동창회장 사진, 모교 운동부(야구부, 배드민턴부, 펜싱부)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전시된 대구고의 위상을 높인 동문 소개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이 큰 꿈을 안고 공부하여 앞으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로 신입생들의 대구고 역사관 탐방을 마쳤습니다.



# 장학금

## ◎ 제62회 졸업식

2022년 1월 4일 모교 시청각실에서 모교 제62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제24대 광동판 총동창회장과 16회 이정운 총괄부회장, 19회 이용호 선임부회장, 20회 오동수 장학상임이사(학교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졸업생 265명에게 축하 연설 및 졸업생에게 장학금 및 동창회장 표창상과 금뺨지 1돈(학생회장)를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졸업식에 이어 졸업생들의 총동창회 입회선언이 있었습니다.

졸업식후 야구부에 들러 야구선수들을 격려하고 손경호 야구감독과 실력향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 장학금 내역 ]

장 학생	금 액
방 ○ 수	300만원
김 ○ 기	200만원
두 ○ 민	200만원
신 ○ 원	200만원
김 ○ 준	100만원
김 ○ 원	100만원
김 ○ 찬	100만원
권 ○ 준	100만원
박 ○ 원	100만원
조 ○ 탁	100만원
이 ○ 호	동창표창상, 금뺨지





◎ 모교 장기근속교사 금뺏지 전달

2022년 4월 20일 광동판 총동창회장이 모교 장기근속 교사 11명에게 금뺏지를 수여하였습니다.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전달

2022년 7월 18일 오후 3:30 모교 세미나실에서 입학생 및 재학생 46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6회 광동판 총동창회장과 16회 이정운 총괄부회장, 20회 오동수 상임부회장(장학상임이사), 11회 남웅수 우영장학 회장, 17회 고무결 동기회장, 17회 박영환 동기회 총무께서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장학금명	총금액	추천기준
신입생 장학금	1,550만원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1등:100만원, 2~30등(29명):50만원
우영장학금(11회 남웅수)	2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자 100만원 x 2명
학포장학금(15회)	3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행동이 바른자 100만원 x 3명
해정장학금(16회 장시호)	2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자 100만원 x 2명
고시달구회	5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자 100만원 x 5명
17회 동기회	2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자 50만원 x 4명
41회 황성윤	2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자 50만원 x 4명
대달회	300만원	프라이드 인재상 30만원 x 10명
총계	3,450만원	



◎ 제63회 졸업식

2023. 2. 3.에 제63회 졸업식이 모교 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 수는 205명으로 졸업생 누계는 32,724명입니다. 김현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축하 인사가 많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대표가 졸업장을 받았으며 그 외 다수의 학생이 교내외상을 받았습니다. 광동판 총동창회장이 학생회장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하며 금으로 만든 모교 교표(뺏지)를 전달하였고, 우수 졸업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25회 박철호 공군군수사령관이 공군참모총장장상을 심O용에게 공군군수사령관상을 김O현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도전정신으로 사회생활 할 것을 부탁하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후 졸업생 205명의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 장학금 내역 ]

장 학생	금 액	장 학생	금 액
민 O 훈	200만원	도 O 웅	100만원
최 O 인	100만원	김 O 명	동창표창상, 금뺏지
이 O 현	100만원	권 O 희	100만원
김 O 준	200만원	정 O 영	100만원



◎ 2023학년도 입학식

2023년 3월 2일(목) 오전 9시 입학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입생 244명이 대구고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24회 김현우 교장선생님이 입학허가를 선언하시고 신입생 대표 김동영의 신입생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동판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25명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동문은 16회 이정운, 19회 이용호, 27회 도태우 부회장이 참석하여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하였습니다.

장학금명	총금액	학생명
입학성적순위	200만원	김 ○ 영
	100만원	안 ○ 우, 전 ○ 언
	50만원	이○훈 외 21명
	총 1,500만원	



◎ 제65주년 개교기념식

- 일 시 2023. 4. 12.(수) 15:00
- 장 소 모교 강당
- 참석자 총동창회장 광동판, 총괄부회장 이정운, 우영장학학회 남웅수(11회), 고시달구회 사무총장 전성우(27회), 대달회 이규현(35회)

4월 12일 교육활동으로 정상수업이 끝나고 전교생이 강당에 집합한 가운데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과 동창회 및 각종 장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개교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광동판 총동창회장은 모교 후배들을 잘 지도 해주신 장기근속한 10명의 교사에게 금 반돈으로 제작한 학교 교표(뺏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적 우수를 비롯하여 각종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재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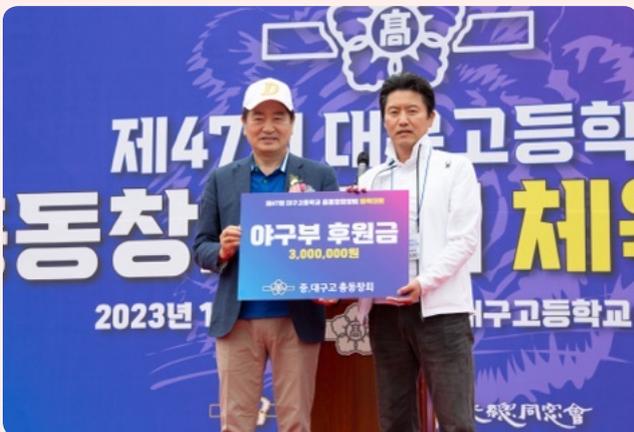
장학금명	총금액	추천기준	학생명
우영장학금(11회 남웅수)	2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 자 100만원 x 2명	3학년 조○호, 남○현
학포장학금(15회)	3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행동이 바른 자 100만원 x 3명	1학년 이○용, 2학년 손○우 3학년 오○승
해정장학금(16회 장시호)	2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 자 100만원 x 2명	3학년 배○강, 이○울
고시달구회	5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 자 100만원 x 5명	1학년 조○용, 2학년 김○경, 김○건 3학년 구○준, 유○현
17회 동기회	2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 자 50만원 x 4명	1학년 우○재, 2학년 이○현, 3학년 김○윤, 유○현
41회 황성윤	100만원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른 자 100만원 x 1명	3학년 양○훈
52회 이슬로문	500만원	조손, 한부모, 행동 바른 자 50만원 x 10명	박○현 외 9명
대달회	300만원	프라이드 인재상	추후지급예정
총계	2,300만원		

## 교기육성

### ◎ 야구부 장학금(1,400만원) 전달

성명(포지션)	금액	성명(포지션)	금액	성명(포지션)	금액
이○민(내야수)	200만원	배○승(투수)	300만원	이○윤(포수)	200만원
이○준(내야수)	200만원	양○종(내야수)	300만원	김○빈(투수)	200만원

### ◎ 야구부 지원금(300만원) 전달



### ◎ 배드민턴부 셔틀콕(500만원) 및 지원금(200만원) 전달



## 재경동문회

### 달구골프회 월례회 개최

날짜 2022. 3. 22.(화)

내용 기흥CC에서 22년도 달구 골프회 월례회가 열렸습니다. 회장 고농림(20회) 총무 이관영(29회) 부총무 황성훈(33회)로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첫 월례회로 6팀 24명의 동문께서 참가하여 동문간 우정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달구 테니스회 3월 월례대회 개최

날짜 2022. 3. 27.(일)

내용 긴 겨울도 지나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는 2022년 3월 27일 과천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달구 테니스회(회장 서정환: 18회) 월례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 테니스를 즐기는 동문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경구 회장을 대신하여 손신호 사무총장과 우천출 상임이사가 격려방문 하였습니다.



### 달구산악회 산행

날짜 2022. 5. 21.(토)

내용 22년도는 2년이 넘도록 모든 행사들이 기약없이 중단되었다가 워드(with)코로나로 바뀔에 따라 행사마다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네요. 달구산악회(회장 20회 이문식, 산행대장 24회 정상열) 신임회장단 취임 후 워밍업만 하다가 드디어 5월 21일 아카시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서대문 안산 둘레길 산행을 실시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참석 약속후 당일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으로 참석인원이 줄어드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동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참석 인원이 늘어나는 좋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달 6월 산행은 청와대 개방으로 가기 힘들었던 청와대 뒷길로 정하였다 하니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반가운 동문도 만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대송회(대구고 송파지역 모임) 모임

날짜 2022. 6. 8.(수)

내용 대송회(대구고 송파, 잠실지역 모임: 회장 18회 윤창희) 모임이 2022년 6월8일 수요일 2여년만에 교대역 대찬횃집에서 가졌습니다. 지역모임은 동기모임과는 달리 좀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 될 수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모임이다 보니 분위기도 좋아 선후배간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아도 어색하지 않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로 즐겁기만한 표정이 아 이게 대고의저력과 전통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달구 건설회: 대구고 건설인모임(달건회)**

날짜 2022. 7. 13.(수)

내용 대고의 기백과 박력으로 뭉친 대구고 재경 건설인 모임이 (달건회: 회장 최희동 19회) 분당 맛집으로 유명한 달구벌몽티기에서 실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술잔을 부딪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역수같은 폭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부어라 마셔라를 외치며 분위기를 살리고 오늘 식대를 더치페이가 아닌 독박으로 감당하시는 선배님을 따라 여기저기서 경쟁하듯이 찬조금을 마구마구 질러버리는 동문님들이 계셔서 더욱더 빛나는 달건회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역군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가발전에 버팀목이 되고, 앞으로도 쭉~~ 대구고등학교 재경동창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23회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날짜 2022. 8. 29.(월)

내용 명문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23회 재경 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항전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확산과 장소확보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22개팀 총 88명의 동문들이 기별 대항전으로 치뤄진 대회에서 25회동기회가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메달리스트는 25회 홍종봉 동문이 차지했고 신페리오 우승은 16회 김인영 동문이 차지하였습니다.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이 더욱더 빛난 것은 25회 동기회가 기별 대항전 우승상금을 받은 100만원 전액을 봉황기 야구대회차 서울에 머물고 있던 같은 기수인 야구부 손경호 감독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하는 훈훈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기와 동문을 사랑하는 25회 동문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 후원해주신 선후배 동문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대고인의 밤 송년행사**

날짜 2022. 12. 9.(금)

내용 대고인의밤 행사가 엘타워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라 400여명의 동문들께서 참석하여 개그맨 38회 이동엽 동문의 진행으로 선후배가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되었고 대고인상에는 19회 이정형 동문께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26회 마재구 동문 자녀를 비롯하여 8명의 동문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상 하였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착용하고 불렀지만 오랜만에 마음껏 불러보는 교가와 함께 송년의 밤 행사는 대고인의 기상을 윈 누리며 펼치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재경동창회 체육대회 개최**

날짜 2023. 5. 13.(토)

내용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체육대회를 4년만에 개최하여 동문 선후배간의 화합과 우정을 쌓고, 가족간의 화목과 사랑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시 2023.05.13(토) 10:00~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운동장

종목 배구, 족구, 페널티킥, 릴레이 외 번외경기로 퍼팅 대회제기차기 등



### 달구산악축제 참가(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날짜 2023. 6. 11.(일)

내용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제9회 달구산악축제가 열렸습니다. 재경동창회에서는 250여명의 동문이 버스 5대와 개별 출발하여, 연풍에서 조령(새재)3관문 - 2관문 - 1관문을 종주하는 코스를 거쳐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출발할 때 소나기가 내려 조금 난감하기도 했지만 집결10분만인 7:40분에 출발하여 충주휴게소에서 간단한 인사와 코스안내 후 연풍에서 조령(새재)을 넘어 행사장으로 가는 길은 청명한 날씨와 그늘로 인하여 시원함을 더해주고, 각자 준비한 간식을 드시는 동문들로 인해 지나가다 아는 동문자리에 들리고, 쉬는 도중에는 지나가는 동문 발길을 기여코 붙잡아 한잔 권하고 하다 보니 2시에 행사장 도착하기도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참가하는 동문이 많아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로 환담을 나누다보니, 다시

서울로 출발시간이 아쉬운 하루일정이었습니다. 먼 길 다녀오는 동안 안전산행과 협조,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사고없이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달건회(달구건설회) 상반기 골프대회

날짜 2023. 6. 18.(일)

내용 대구고 재경 건설인 모임인 달구 건설회(달건회) 회장: 신진학(20회) 사무총장 서봉균(27회)에서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써닝포인트CC에서 가족까지 초청하여 함께 라운딩을 즐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승은 심규철 회원(27회)이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고 회원들의 많은 찬조로 풍성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 고시달구회 문화행사모임

날짜 2023. 6. 21.(수)

내용 고시달구회(회장:김광훈(18회))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메가박스 코엑스 프라이빗관 전체를 대여하여 당일 개봉한 영화(제목:귀공자)를 관람하는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부기관과 법조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6회부터 44회까지 많은 동문께서 한자리에 모여 우아하게 와인을 곁들인 식사도 하면서 퍼스트 클래스 같은 좌석에서 담소도 즐기는 유익한 만남을 장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대구고 재경동창회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하시는 고시 달구회의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 제24회 재경 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날짜 2023. 8. 29.(화)

내용 이천 마이더스 CC에서 올해로서 24회째를 맞이하는 재경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매달 4째주 화요일날 월례 정기모임을 진행하는 달구 골프회 주관으로 개최된 24회 회장배 골프대회는 3회부터 41회까지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발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집가는 날 등창 난다고 심술궂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시작 했으나 끝장을 보는기라” 하면서 우중 경기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출만 돌고 아쉽지만 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종합우승은 14회(곽윤성, 손영석, 정근양, 최임수)에서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 제11회 재경동창회장배 기별당구대회 성황리 개최

날짜 2023. 9. 17.(일)

내용 강남구 논현동 소재 쉐빌로트 당구장에서 애당회(회장 박봉식(18회) 총무 전옥배(20회)) 주관 동창회장배 기별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동문들의 관심이 많아져 고참 기수는 물론 35회 37회 동문들도 팀을 이루어 참가하고, 6회 선수단이 3회전까지 진출하는 선전을 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어 4구 우승은 11회에서 차지하였고 3구 우승은 18회가 차지하여, 올해 종합우승은

18회 동기회가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2024년 재경동문회 행사계획

NO.	행사명	일자
1	재경 2024 정기총회	2024. 2. 2.(금)
2	재경 통합시산제	2024. 3. 16.(토)
3	재경 기별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상)	2024. 3. 22.(금)
4	재경 기별테니스대회	2024. 4. 13.(토)
5	재경 춘계체육대회	2024. 4. 27.(토)
6	재경 기별골프대회	2024. 8. 27.(화)
7	재경 기별당구대회	2024. 9. 22.(일)
8	재경 기별등반대회	2024. 10. 19.(토)
9	재경 기별바둑대회	2024. 10. 26.(토)
10	재경 기별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하)	2024. 11. 1.(금)
11	재경 2024 대고인의 밤	2024. 12. 6.(금)

## 재부동문화

회장: 이종오(18회)  
 부회장: 최영식(18회), 문환업(19회), 방정현(20회), 최세종(21회)  
 사무국장: 성무경(18회)  
 총무: 이호석(31회), 이창형(31회)

### 2023년 4월 30일 춘계야유회

내용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드라마촬영지 탐방 선암사(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태고총림, 승선교)



### 5월 25일 재부 친목 연주회



### 매주 토요일 취미별 모임(당구회)



### 6월 11일 총동 달구산악축제 참가



### 가을 단풍여행

일시 2023년 10월 29일(일)  
 장소 함양/산청 (선비문화 탐방로, 동의보감 숲속체험)



**제9회 동창회장기 당구대회**

일정 2023. 11. 11.(토)

우승: 16회 신시호, 준우승: 16회 박상근,  
3위: 16회 김상규, 4위: 18회 이종오,  
5위: 10회 서현교, 6위: 9회 김대석, 7위: 17회 강승모



**2024년 재부동문회 행사계획**

NO.	행사명	일자
1	재부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2024. 4. 21.(일)
2	재부 춘계야유회	2024. 4. 28.(일)
3	재부 달구회장배 골프대회	2024. 9. 14.(토)
4	재부 가을야유회	2024. 10. 27.(일)
5	재부 동창회장배 당구대회	2024. 11. 9.(토)
6	재부 2024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24. 12. 12.(목)

**재포항동문회**

**모교야구부 포항방문**

봉황대기 우승기념 선수단 자축행사

일정 2023. 10. 27.(금)~28.(토)

장소 포항, 경주지역

내용 모교야구부(감독 25회 손경호, 야구부 60여명)가 포항을 다녀 갔습니다. 오후에 포항생활체육야구장에서 경일대학과 친선경기를 가졌고, 저녁에 죽도시장 영포화센터에서 봉황대기 우승기념 선수단 자축행사를 가졌습니다.





## 대달회 (대구고 달서구 동문회)

회장 권혁수(23회) 총무 이성재(29회)

대달회는 대구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있는 동문들 친목도모를 위해 2013년 결성하여 현재 약50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초창기에는 지역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을 하였고, 2013년부터 매년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 월례회



### 6월 선배님들 몸보신 대회



### 2022년 송년회 및 야구부 후원의 밤



### 대고 프라이드 인재장학금 전달 (매년 300만원)





## 대본회

고문 장병기(9회), 구광모(13회), 박헌경(19회)  
 회장 김규성 (19회)  
 사무국장 이창용(23회)  
 총무 시동훈(32회)

대본회는 대구고등 졸업생 중구, 서구, 남구에 직장이나 거주하는 지역동문 모임입니다. 2006년 연말에 장병기 초대회장님을 모시고 결성된 모임입니다

**2023년 6월 25일 앞산 전망대 완주 및 정기모임**



## 1회 동기회

2023년 9월 7일 제9회 대구, 서울 동기생 만남의 날 행사를 충북 단양에서 가졌다. 졸업 50주년 이후부터 매년 계속해오던 행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3년 올해 다시 대구, 서울 동기생 40여 명이 모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 2회 동기회

### 졸업60주년 기념 및 팔순 잔치

우리 2회 동기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동기들의 모임은 죽 이어 왔습니다. 2022년도 들어 졸업 60주년 기념 겸 팔순 잔치를 하자는 의견이 동기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그래서 2022년 회장단(회장 배태홍, 재무 이영근, 총무 정성길)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나이도 있고 하여 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이라 대구지역에 거주 중인 동기만이라도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11

일 대구 중앙로 “산 한정식” 식당에서 40여 명의 동기가 모여 졸업60주년 기념 및 팔순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모여서는 학창 시절 이야기 중 2.28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뚫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 8회 동기회

### 대팔 산유회

운주사: 전남 화순군 도산면

거리: 대구~191Km

참가자

부부: 강정남, 기우택, 김일상, 김태호, 박근무, 배상용, 배영상, 백창현, 서전규, 손달윤, 송호근, 오창열, 오창민, 우창희, 이기운, 이용득, 이제수, 이창희, 조정호, 현성택, 황선희, 황재석

솔로: 박준열, 송준철, 이태환. 김기회 이상: 48명

운주사는 와불(臥佛)과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유명, 그만큼 불상과 탑이 많다. 예쁜모양의 석탑이 아니고 투박하게 생긴 탑이 대부분이다. 절이 세워진 시기는 신라말 도선국사가 한반도의 기운이 동쪽으로 쏠려있어서 한반도의 기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주사를 세우고 천불천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10회 동기회

### 동기회 사무실 운영을 통한 동기회 활성화

10회 동기회는 2012년 11월 박홍근 회장 재임 시 달서구 성당로189 신화빌딩 4층에 동기회 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5평 크기의 사무실에는 당구대, 냉온풍기, 대형TV, 소파 등 각종 가구가 비치되어 있어 동기들이 언제든지 바둑, 당구, 카드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많은 동기들이 이용하고 있다.

매 짝수달 동기회 월례회는 동기회사무실에서 낮에 개최하는 등 동기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 이영일 동기회장은 동기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향후 탁구대와 간단한 운동기구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회 동기회

11회 동기회는 최성해 총동창회장을 배출하였고, 후배장학과 야구부후원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총동창회 관련 주요행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왕성한 동기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제동이 걸렸으며, 매달 빠짐없이 하던 월례회를 2년 가까이 쉬었습니다. 2021년도는 졸업 50주년이 되는 해였으나 기획하던 모든 행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2022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지금은 더욱 돈독한 동기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동기회 동정

대구 서울 부산 포항 경주 등에 지회가 활성화되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각 지회마다. 등산, 당구, 골프 등의 동호회가 있어 동기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회 흠피는 자랑거리인데 흠피지기 최승권 동기의 헌신으로 전문가 수준의 짜임새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동기들의 연결고리가 되어 왔으며, 이제는 실시간 소통을 넘어 11동기회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 13회 동기회

### 졸업 50주년 기념 경주 투어

이른 아침 여행은 3년만에 처음인데다 어릴적 소풍전

날 설레는 마음까지 더해져 잠을 설치면 탑승시간을 놓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으나 가족의 도움으로 서울역에서 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다. 열차를 기다리면서 잠깐 보게 된 단독방에 올라온 전병탁동기의 글은 농담 좋아하는 친구의 환송글로 생각하고 열차에 올랐는데 친구들과 같이 옆자리에 딱하니 자리잡고 있는것이 아닌가? 참 재주가 많은 친구다. 9시 반경에 동대구역 앞 광장에 먼저 온 대구 친구들과 함께 30여명이 졸업50주년 플래카드를 중심으로 모였다 서로가 더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기들은 안 보이고 모르는 초로의 할배들 뿐이다. 문경산악축제에서 가끔 보거나 5년전 우영택 김재구 동기와 같이 방문했을 때 만난 동기들을 제외하면 전부 50년만에 보는 친구들이다. 까무잡잡하고 색 있는 안경을 쓴 한 친구가 연신 큰 소리를 내며 이쪽저쪽으로 바쁘게 돌아다닌다. 아마 나름대로 자기를 알리고 모르는 친구들을 환영한다는 뜻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잘 기억이 나지않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3학년 때 3반 김영진 이라고 소개하면 친구도 몇반 누구라고 응대한다. 찰나의 침묵이 흐른 뒤 서로의 이름을 되뇌이고 눈을 보면서 머리속은 재빨리 졸업앨범 속의 사진과 50년 전 교정에서의 연관된 추억, 웃는 모습 등 과거를 고집어 내려는 노력에 하나 둘씩 아! 그래~ 하는 탄식과 함께 잡고 있는 손을 더욱 격하게 흔든다. 과거가 소환되어 희미하지만 서로를 인지하는 순간순간 전율을 느낀다. 관광버스에는 좌석마다 보조가방에 점심 샌드위치 과일 과자 견과류 커피 음료 및 기념타월 등 한가득 들어있어 대구동기회의 철저한 준비와 고마움을 엿볼 수 있었다. 토함산 정상 공터에서 웅기종기 앉아 점심을 하니 학창시절 소풍과 다름이 없었다. 10대와 70대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사람 아닌가 서로 보고 웃으면서 식사하고~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토함산 오는 차안에서도 위에 언급한 그 친구가 존재감을 뽐내기에 물어보니 정창주 동기라고 하길래 한달전 산행 때 구미대학총장 퇴임한 친구라고 들은게 생각났다. 외모와 행동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 ㅎㅎ 웃음을 자아내는

반전이다. 토함산 오르면서 옆으로 오길래 내가 먼저 인사하니 어라 이친구 정말 예의 바르고 손으로 전해 오는 느낌이 내공이 있고 부드러운 심성의 소유자인 것 같다. 그래 총장18년을 아무나 하나 포항 부산동기들과 합류하여 불국사를 관람한 후에 서울상경 시간 때문에 이른 저녁을 위해 보리굴비정식 식당을 찾은 시간이 4시 반경이다. 50년만이지만 그새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한참 무르익었을 때 부산에서 백운현 동기가 합류하여 한명씩 술잔을 돌리면서 인사를 한다. 학생 때 얼굴을 잘 보존한 몇 안 되는 친구다. 식사 끝나고 칠순잔치를 한담시고 꼬깔 모자에 술잔 들고 사진찍고~ 서명하고~ 이렇게 행사는 마무리 되고~



### 서울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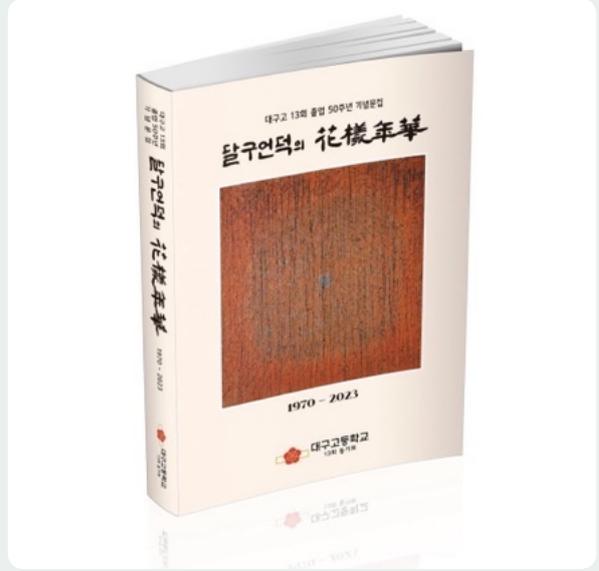
2023년 9월 16일, 전국 각지의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13동기회에서 주관한 졸업50주년기념 동기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파악하고, 작성하고, 만들고, 붙이고, 사고, 옮기며 나름 준비했지만 예상 외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원만히 진행될까 걱정했는데, 주위의 도움과 참석자들의 협조로 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달구언덕의 花樣年華> 발간

올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주년,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졸업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문집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편집장을 맡았다. 9개월 여의 노심초사 끝에 마침내 6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문집이 완성되었다. 나의 유일한 버킷리스트가 실현된 것이다. 꿈만 같다. 문집 발간의 본뜻은 께 벗은 옛날의 수식 없는 날 풍경 속에서 스러져가는 남루한 시간을 찾아 하늘이 허락한 각자의 남은 시간을 그래도 여유롭게, 대고13회라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자긍을 돌이키자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문집이 인생의 황혼을 지나면서 문득 외롭고 그리울 때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집 발간의 단초가 된 발간 취지문을 다시 읽으며 격렬하게 솟구치는 감회를 추슬러본다. 달구언덕은 모교인 대구고가 위치한 곳, 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한다. 표지의 그림과 제호는 千樹 노상동이 그리고 썼다.



10월 31일 오후 3시 모교 역사관에서 모교발전기금 전달식 및 기념문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15회 동기회

2023. 10. 22.(일) 문경새재 단풍놀이를 갔다 오다.

이미 고희(古稀)를 눈앞에 둔 친구들이 나이도 잊은 채 젊음을 가슴에 안고 새재를 넘다. 서울과 대구에서 70명의 친구들이 3관문에 내려서 10시 30분경부터 산행을 시작하다.

3관문을 지나니 주막이 있어서 산채전과 막걸리를 시켜놓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단풍을 만끽하다. 3시간 30분에 걸친 산행 후 문경새재 제 1주차장인근 새재 마당바위 펜션에서 뒷풀이를 한 후 박봉기 동문의 전원주택에서 다과를 마친 후 대교교가를 끝으로 새재 단풍놀이를 마친다.

15회 동기가 쓴 새재와 관련된 시 한편을 부칩니다.

새들도 날아 넘기 힘든 고개, 새재에는  
과거길 청운의 꿈이 여태까지 푸르려져  
만방의  
산사람들이  
함께하니 더 짙구나

고된 삶을 등에 지고 넘던 고개, 아라리요  
옛 주막 한잔 술에 여독을 다 풀고 설랑  
조령에  
맞닿은 하늘  
얼싸아니 오르리

- 김낙기 -

### 10월 22일 노익장을 과시하다. (달구 테니스회장배 시합 참가)

이미 격한 운동에서 은퇴를 할 나이의 15회 동기들이 꾸준히 테니스 시합에 참가하는 이유는 후배들의 간청과 더불어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 위함이라고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후배들과 함께 자웅을 겨누어 백호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니 본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테니스 모임은 매주 수요일 황금중학교에서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선후배 관계없이 가입해서 함께 즐겨도 됩니다.

### 10월 26(목) 수담을 즐기다. (기우회 모임)

한국기원 대구 지부에서 바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한달에 한번씩 수담을 즐기는데 대체적인 구성은 아마 5단 수준이 7명, 4점 접바둑을 두는 친구들이 7정도인데 이번 달은 10월 26일(목요일)에 만나 수담을 나누다. 수를 읽고 이기고 지는 삼매경에 빠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잊어버림. 퇴직한 친구들이 할 일이 없는 지 기우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바둑 후에 먹는 생선구이 정식이 일품이라 어떤 친구는 생선구이 정식을 먹으러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 16회 동기회

## 동기회 동정

(회장 2022 박준원, 2023 박오동)

매월 16일 동기회 월례회 개최 (참석인원 20-35명)



## 16동기 산악회(회장 2022, 2023 지용일)

매월 2022년 첫째 일요일/ 2023 둘째 일요일 (20-40명)

## 2023년 3월 12일 마산 저도 해안도로(비치로드) 걷기

저도 해안도로(비치로드) 걷기 후 연육교 (콰이강의 다리) 및 해양드라마 세트장 다녀 왔습니다. 대구출발 인원 29명 마산 합류 8명 계 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산에서 합류한 동기로는 16회 동기회장 박오동(이은희) 부부, 김창민(김은선) 부부, 김창한(김병록) 부부 박상근 박승관이였습니다. 풍성한 학창시절 추억과 고등학교 졸업 후 살아온 각자의 발자취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오순도순 대화하며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비치로드를 걷고 구이바다식당에서 조개구이와 해물라면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2023. 6월 달구산악축제 최다 참가상 2위 수상

매년 12월 셋째 주 16동기회 송년회 개최

## 16동기 골프회

(회장 2022 박기수, 2023 현종현)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군위오펠CC (20-32명 참석)



# 17회 동기회

## 춘계산행대회

날짜: 4월 9일

장소: 원주 소금산그랜드리 · 제천 배론성지, 의림지

참석인원: 33명



대구고17회야유회소금산그랜드백리(20230409)

## 달구산악축제

날짜: 6월 11일

장소: 문경새재 일원

참석인원: 77명

(최다참가상 수상)



## 하계 단합대회

날짜: 8월 19일

장소: 팔공산 대한수목원

참석인원: 43명



##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날짜: 8월 31일

장소: 청주 대영베이스CC

참석인원: 51명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 1학년12반 여든을 넘은 스승과 함께한 뜻 깊은 스승의 날

2022년 5월15일 ‘스승의 날’ 대구고 17회 1학년 12반 반창회가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한수목원 야외 연회석에서 열렸다. 대구고 1회 선배이자 12반 담임을 맡았던 류번(28) 선생님은 전국에서 모인 22명의 제자를 한 사람씩 끌어 안으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시니어매일 기사본문)



# 18회 동기회

## 정기총회

일시: 2월 16일

장소: 통돼지한마리

참석자: 17명

- 안건: 1) 선거인단구성 전임회장 김기문을 의장으로 하여 차기회장선출: 최태용 동기 추천을 받아 선출함
- 2) 신임회장 최태용 인사
- 3) 감사로 임원규,이우익 선출
- 4) 차기총무 김성철 차기홍보 이현철 지명함



## 3월 고문단회의

일시: 3월 17일

장소: 통돼지한마리

참석자: 12명

- 안건: 1) 고문단의장 이장희 주제로 고문단회의의 진행
- 2) 총동분담금 미납문제 해결방안토의
- 3) 동기회발전기금 찬조로 동기회분담금미납처리키로함

(동기회발전기금 찬조내용 밴드,문자 공지)



## 4월 재경 총동창회 체육대회 참석

일시: 4월 11일

참석자: 현임원단(최태용회장, 김성철총무, 이장희 상임고문) 참석



### 4월 월례회

일시: 4월 18일

장소: 통돼지한마리

참석자: 17명

- 안건: 1) 총동 18회 밀린 분담금 해결에 대한 회장님 감사인사말  
 2) 6월 달구산악회 많은 참석유도  
 3) 7월 1박2일 18동기회 야외 단합대회 하기로함.



### 5월 고문단회의

일시: 5월 17일

장소: 통돼지한마리

참석자: 12명

- 안건: 1) 배문열당구회장 총동당구대회 참여격려  
 2) 최태용회장 6/11 총동행사 참여독려  
 3) 이장희 상임고문 23년 동기회 행사 날짜 결정 공지하자
- ① 7월18일 18동기회 월례회
  - ② 8월26일 18동기회 야유회 (1박2일,청도 예정)
  - ③ 6월19일 현장답사 (이기순,이장희,이기홍)
  - ④ 9월18일 18동기 월례회
  - ⑤ 10월8일 총동기별 체육대회
  - ⑥ 11월17일 18동기 월례회
  - ⑦ 12월16일 18동기 송년의밤



### 5월 총동창회장배 당구대회

일시: 5월 28일

참석자: 32명

18회 4팀 출전하여 기필코 결승진출의 목표를 가지고 임했으나 1팀 4강 진출로만 만족, 역시 후배 기수한테는 역부족



### 총동 달구산악 축제

일시: 6월 11일

장소: 문경세재

참석자: 47명(재경,재부포함)

참가상: 3위



### 7월 월례회

일시: 7월 18일

장소: 통대지한마리

참석자: 12명

안건: 거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인 폭풍우속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동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포함합니다.

- ① 하반기 행사 공지로서 10월8일 총동 기수별 체육대회, 12월 16일 18회 송년의밤, 9월18일 18동기월례회 등을 공지하였습니다.
- ② 긴급안건으로 계획되었던 8월 1박2일 야유회 취소건으로 투표결과 취소찬성 80%으로 취소하는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 ③ 마지막으로 이상희고문님의 인사와 태국 한달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임원규 동기님의 인사를 마치고 폐회를 하였습니다.

10월 총동 체육대회에 많은 참석에 18회의 단합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9월 월례회 때는 더 많은 우리 친구님들을 뵙기를 기원합니다.

### 9월 월례회

일시: 9월 18일

장소: 통대지한마리

참석자: 15명

안건: 하반기 행사 공지로서 10월8일 총동 기수별 체육대회를 공지하였습니다.

① 체육대회 광고 스폰서 18기할애사항인 1Page(1,000,000)의 내용은 배문열 총동 당구회장님의 진행으로 모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금번간 빠른시간안에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총동 부회장의 분담금납부문제는 24년부터 동기회기금으로 납부함을 의결 하였습니다.

### 총동회장배기별체육대회

일시: 10월 8일

장소: 모교운동장

참석자: 43명(재경,재부포함)



### 대구고18 소모임

- 대구고18기우회
- 대구고18테니스회
- 대구고18골프회
- 대구고18산악회:매월 첫째 토요일



11월 월례회

일시: 11월 7일

12월 망년회

일시: 12월 29일

장소: 그랜드 호텔

# 19회 동기회

**일구산악회 :**  
**졸업40주년기념 중국태향산 여행**

대구고19회 일구산악회에서는 졸업40주년(1979 ~ 2019)을 맞이하여 기념으로 중국 태향산(청계산, 통천협, 태향산대협곡, 팔천협 등)을 4박5일(2019. 8.10~ 8.14)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회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산의 풍광을 즐기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일구산악회에서는 일본 북알프스, 중국 장가계, 황산, 대만 등 해외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국내 명산들을 드루 산행했습니다.

매월 세째주 일요일에 산행을 하는데, 체력을 생각해 분기에 1회 조금 힘든 산행, 2회는 가벼운 산행을 하고 있으며 골프회, 테니스회와 함께 동기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2023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3.2.10.)



달구산악축제 참가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



### 9월 월례회

일시 : 2023. 5. 18.~5. 20.  
장소 : 일본 히토요시 쿠마CC



## 21회 동기회

### 대고 21회 진갑기념 단합대회

정구철 회장을 비롯한 23명의 동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9월 3일(일)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외부 단체활동을 못한 가운데 드디어 올해 초 부터 외부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됨에 따라, 동기회 정구철 회장의 과감한 결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코스는 대구 출발 -> 거가 대교 -> 거제도 국자 횡집 -> 유람선 승선 -> 저도 탐방순이었습니다. 경비는 거액의 회사를 한 동기들 덕분에 참가한 동기들은 매우 적은 부담으로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동기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 40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한 친구들이,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한 동기들의 마음을 다 같이 담은 단합대회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동기 전부의 참여를 목표로 만남은 계속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시간은 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임을 아시고, 보다 젊을 때 21회 동기들 자주 보입시다.



## 22회 동기회

### 회장단

고문 : 이승렬(3반), 배인삼(1반), 정성훈(8반), 이원석(8반), 이동형(1반), 정홍수(6반), 신용호(6반), 광철희(11반), 임순영(3반), 이경호(5반), 이흥규(9반), 김재욱(2반)

회장: 서정천 (4반)

부회장: 오재길(3반), 홍순만(7반), 최성욱(8반), 이갑돈(9반), 홍원표(10반), 김상우(11반), 조응래(11반), 장영현(12반)

감사: 변석균(1반)

총무: 배구주(3반)

동호회: 당구회 회장 나채인(3반), 산악회 회장 김상우(11반), 승마회 회장 정성훈(8반), 골프회 회장 서기원(3반), 테니스회 회장 정범식(9반)

### 동기회 행사 및 소식

[2023 10월 체육대회]

10월 8일 모교운동장

참석자 명단 (20명 참석)

김태수, 배구주, 배재관, 변석균, 석성규, 유병완, 윤성태, 이경호, 이동형, 이만희, 이상익, 이흥규, 임순영, 정성훈, 정유동, 정재진, 최 건, 하인성, 현병준, 홍원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동기 소식 (지역별동기회장 및 동기동정)]

신영봉(2반) ; 재경 동기회장 / (주)지승개발 대표

현정기(1반) : 구미 동기회장 / 미정산업 대표

양인이(11반) : 포항 동기회장 /금창엠앤씨(주) 부사장

이용순(8반) ; 울산 동기회장 / 현대자동차

전호용(9반) : 부산 동기회장 / 유림정보시스템

김건열(3반) : 삼일회계법인 고문

김재욱(2반) : 칠곡군수

김정엽(11반) : 파이렉스(주) 대표

김택동(3반) : 대구은행 사외이사

문경구(12반) : 총동창회 달구테니스회

백창기(2반) : KCC 전무이사

변석균(3반) : 영춘교육재단 해화여고 법인감사

이동형(1반)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만희(3반) : 국민의힘 사무총장(국회의원)

이인구(5반) : 경상북도 배드민턴협회 회장

임순영(3반) : 한국 난(蘭)문화협회 이사장(전국회장)

정성훈(8반) : 영천 제이원 승마센터 대표

정영채(5반) : 능인중학교 교장

정홍수(6반) : 대구시의사회 회장

최 건(5반) : 대구동구 구의원

하인성( 8반) :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행사 안내]

11월 동기회 회장 이 취임식

11. 24(금) 동애 장작구이

12월 대구고 총동창회 송년의 밤

12. 13(수) 호텔 라온제나





## 23회 동기회

### 동기골프대회

4월 30일 한맥컨트리클럽 48명참가



### 총동창회배 골프대회 단체전 우승

6월 29일 인터불고CC

제14회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2023년 6월29일(목) 인터불고 CC

추첨

수상기수 : 23회  
시상자 : 성진용 (6회)

단체전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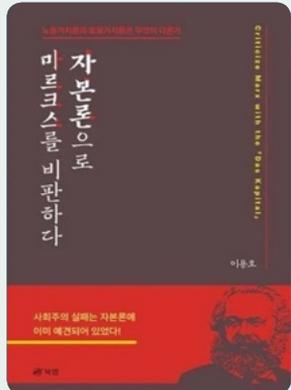
### 매월 23일 맛집탐방 동기회



각종 동호회 활동  
사진, 골프, 테니스 활동

동기근황

- 1) 오원석 고흥가야골프랜드 인수, 운영
- 2) 이용호 출간 "자본론으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다"



부산청사포 번개모임

7월 13일 주관 부산대 김정구 동기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10월 14일 대구그랜드호텔

참석인원 : 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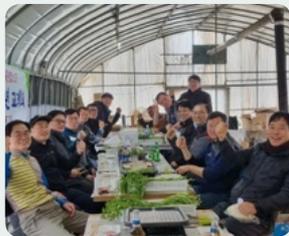
장학기금 일천만원 기탁



# 24회 동기회

## 1월28일 시산제 및 신년교례회

회원 천수봉 일원  
배주범 회장 외 21명



## 4월30일 정기 섬투어 '욕지도'

문종상 외 41명



## 6월11일 문경 달구산악축제

김현철 외 55명



## 7월21~22일(1박2일) '태백 오투CC' 24친선골프회

김기철 외 27명



### 9월1일 정기 월례회(수성구)

홍종인 외 13명



### 10월8일 총동 체육대회

배주범 외 50명



## 25회 동기회

### 주관 모교 야구부 봉황대기 우승 축하연 개최

동기생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모교 야구부의 봉황대기 우승을 축하하고자, 모교 야구부 후배들을 초대하여 2023년 9월 19일 더뷔페 옛 인터볼고에서 축하 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랑스런 야구부 후배들과 우리 동기생인 손경호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모교 야구부후원회 회장님, 학부모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축하연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주신 동기생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 25 골프회 봄소풍

25 골프회에서 월례회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13 ~ 14일 5팀이 골프존카운티순천 1박2일 라운딩을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날 국민학교 소풍 가듯 즐겁게 놀고먹고 꿈만 같은 멋진 추억하나 가슴에 담아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 26회 동기회

### 대구고등학교 26회 동기회 연간 동정

대구고등학교 26회 동기회는 2023년 4월 9일에 신흥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배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로 심신을 단련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고등학교 26회 동기회는 2023년 9월 10일 월광수변공원 등산과 체육대회로 동기들간 친목을 도모하다. 가을의 청취를 만끽하고, 체력증진과 힐링으로 추억을 만든다.



## 30회 동기회

### 졸업30주년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일시 : 2022년 10월 8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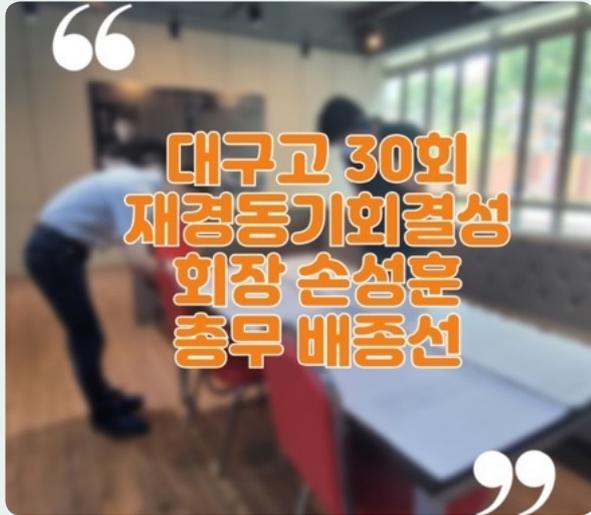
장소 : 라온제나호텔

졸업 30주년 기념하여 모교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일천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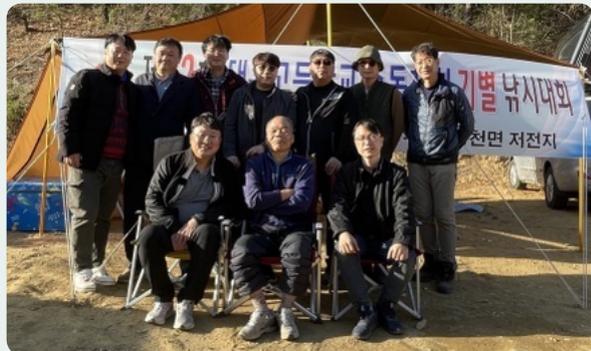
### 재경동기회결성 등 모교방문의 날 준비

2022년 8월부터 졸업 30주년 기념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총동창회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장배 기별 낚시대회 참가

2022년 준우승, 2023년 우승



월례회 모임



총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 참가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 참가

종합 준우승, 경품 1등(LG TV 55인치) 당첨



# 31회 동기회

2022년도 10월 모임

일 시 : 2022. 10. 21.(금) 오후7시

장 소 : 친구참숯불마을



## 제17회 대구고등학교 달구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우승 (대고31회)



## 2022년도 송년회

일 시 : 2022. 12. 16.(금) 오후7시

장 소 : 친구참숯불마을



## 2023년도 신년회

일 시 : 2023.4. 24.(월) 오후7시

장 소 : 고향집막창

## 2023년도 6월 모임

일 시 : 2023. 6. 16.(금) 오후7시

장 소 : 거북이 생고기

## 2023년도 9월 모임

일 시 : 2023. 9. 19.(화) 오후7시

장 소 : 친구참숯불마을





제26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준우승 (대고31회)



제47회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

종합 3위 입상



졸업30주년 기념 장학기금 1,000만원

모교 야구부 후원금 200만원

배드민턴부 후원금 100만원 기탁



## 제13회 총동창회장배 기벌 골프대회

날짜: 2022. 6. 30.(목)  
장소: 대구인터불고C.C

### 개인전

#### [스트로크]

챔피언: 김덕겸 (33회)  
2위: 권영근(27회)  
3위: 이지원(29회)

#### [신페리오]

우승: 권오철(19회)  
준우승: 권영민(30회)  
3위: 박정태(33회)

#### [기타]

롱기스트: 이경열(20회)  
니어리스트: 최정태(31회)

### 단체전

1위: 33회  
2위: 25회  
3위: 29회



## 제14회 총동창회장배 기벌 골프대회

날짜: 2022. 6. 29.(수)  
장소: 대구인터불고C.C

### 개인전

#### [스트로크]

챔피언: 임충성 (19회)  
2위: 이지원(29회)  
3위: 김주현(25회)

#### [신페리오]

우승: 정만진(7회)  
준우승: 이승우(6회)  
3위: 이상무(34회)

#### [기타]

롱기스트: 이승모(24회)  
니어리스트: 김동호(28회)  
다버디: 이은채(39회)  
다파: 김호락(17회)  
다보기: 황용욱(29회)

### 단체전

1위: 23회  
2위: 19회  
3위: 29회





## 2022 총동창회장배 기별 낚시대회

2022년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낚시대회가 4월 23일(토) 오후 5:00~24일(일) 오전 8:00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호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곽동판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16회 이정운 총괄부회장이 참석하여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8회 이재원 동기회장이 20만원을 찬조하였고, 34회 김성훈 동문이 참그늘 모자 햇빛가리개 30개를 찬조하였습니다.



우승: 35회 동기회  
준우승: 30회 동기회  
3위: 34회 동기회



## 2023 총동창회장배 기별 낚시대회

2023년 제2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낚시대회가 4월 8일(토) 오후 5:00~9일(일) 오전 8:00 구미 장천면 저전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곽동판 총동창회장과 16회 이정운 총괄부회장이 대구에서 출발하여, 논밭에 농사 준비로 여기저기 한두 명의 농부가 오가는 한적한 시골 장천면 저전리 못을 찾아갔습니다. 조우회 회장 17회 김종락, 총무 30회 조성호 외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은 벌써 못가에 앉아 낚시를 시작하고 있었고 총동창회장과 조우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회원들이 줄지어 정렬하여 낚시대회 개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동창회장 인사 말씀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사가 진행되길 바라며 봄철 밤낚시에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부탁하고 총동창회 지원금을 17회 김종락 조우회 회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낚시회 회원들은 밤새 낚시하고 다음 날(4월 9일) 아침 8시경에 낚은 고기를 평가하여 시상한 바 시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상내역]

우승: 30회 동기회  
준우승: 10회 동기회  
3위: 17, 24회 동기회  
대어상 : 9회





## 제1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

2022. 7. 24.(일) 동그라미클럽(대구 수성구 지범로 2 08 5층)에서 당구를 취미로 하시는 동문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1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총동창회장 곽동판, 총괄 부회장 이정운, 선임부회장 이용호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당구대회에서 총동창회장도 직접 16회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취미활동으로 당구를 통하여 대구고 동문 간에 정교 쌓으며 애교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상내역]

우승: 21회

준우승: 24회

3위: 18회 동기회



## 제14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

2023. 5. 28.(일) 제14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가 동그라미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곽동판 총동창회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시상내역]

우승: 22회

준우승: 27회

3위: 16회 동기회

4위: 24회 동기회



## 2022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

2022. 8. 21.(일) 대구광역시 바둑협회(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49 3층)에서 2022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소 같고 닷은 바둑실력을 대구고 동문들이 30여명 모여 단체전으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시상내역]**

- 우승: 15회
- 준우승: 16회
- 3위: 11회



## 2023 총동창회장배 기별 배드민턴대회

2023. 10. 8.(일) 모교강당에서 2023 총동창회장배 기별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24회 이무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은 모교 배드민턴부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상내역]**

- 1위: 31회 동기회
- 2회: 26회 동기회
- 공동3위: 17회, 30회 동기회



## 제25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2022년도 제25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가 4월 24일(일) 오전 9시 두류공원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기수: 11, 15, 16, 19, 21, 22, 23, 24, 25, 27, 31, 37회

[시상내역]

- 우승: 25회 동기회
- 준우승: 22회 동기회
- 3위: 27회, 31회 동기회
- 공로상: 19회 김성규 동문



## 제26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2023년도 제26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가 4월 23일(일) 오전 9시 두류공원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광동판 총동창회장과 16회 이정운 총괄부회장이 개회식에 참가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장의 대회격려사를 하고 이어서 21회 이창락 테니스회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개회식 이후 테니스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일부 회원님들의 부인까

지 참석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며 테니스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문부부가 함께 같은 취미로 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참가기수: 15,16,19,21,22,23,24,25,27,31회

[시상내역]

- 우승: 22회 동기회
- 준우승: 31회 동기회
- 3위: 15회, 21회 동기회



## 제18회 달구회장배 테니스대회

2023. 10. 21.(일) 두류테니스장에서 제18회 달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상내역]

- 청룡부: 1위 25회, 2위 31회
- 백호부: 1위 27회, 2위 15회



# 祝刊達丘會報

吳海一 (13회)

觀於達丘難爲校  
달구언덕를 보지 않고서 학교를 논하기 어렵고  
狐谷學兄難爲義  
여우골 학형 앞에서는  
의로움을 말하기 곤란하네  
桑田碧海回甲餘  
상전벽해 같은 예순여년 세월에  
而今會報學窓時  
이제 학창시절의 회보를 만드네  
銘心不以形害志  
명심 할것은 형식이 그 숭고한 의지를 방해 되어서는 아니되고  
宜當胸懷崇高氣  
의당 가슴에 품은 숭고한 뜻을 가져야 할것이야  
心在未來今常愍  
마음은 미래에 있고 현실은 언제나 슬픈것  
忍共耐還歸歡怡  
참고 또 견디면 기쁨과즐거운 나날이 올 것이니  
君不見二月義聲  
그대여 보지 않았나2.28의거의 함성을  
名聲海內鐘永期  
그 명성 그이름 온누리에 영원히 울려 퍼지리  
人間正道涉蒼海  
세상의 바른 정도는 거친검푸른 바다를 건너는것과 같고  
狂風破濤就有支  
모진 바람 험한 파도를 헤치고 우리는 맞서 성취 할 것입니다.

註.. 12행으로된 排律詩이고 押韻은  
上平聲 4번째 支韻目에 속하는 義.時.氣.怡.期.支입니다..  
古體詩에서는 通韻이 가능하나 近體詩는 금기합니다.

# 내가 읽은 『천자문』

김 건 곤(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나는 아침 식사 후 작은방의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동쪽 방문 앞에 겸상(兼床)을 갖다놓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천자문』을 배웠다. 아버지가 먼저 읽고 내가 따라 읽기를 수십 번 한 뒤에, 그날 배운 글자의 훈(訓)과 음(音)을 나 혼자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공부가 끝났다.

공부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였던 것 같다. 어머니는 부자간에 글 읽는 모습에 흐뭇해하며 간식을 챙겨 주었고, 할머니는 공부가 끝난 뒤에도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좋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거듭 청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할머니의 요청은 나를 반복 학습시키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한 다음에 『천자문』을 한번 읽어야만 밖에 나가 놀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읽곤 하였다. 아버지가 매우 엄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것 같다.

내가 집에서 『천자문』을 읽고 있으면 동네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불러내면서 나를 놀렸다. 그들은 『천자문』 읽는 소리를 흉내 내어, “하늘 천, 따따 지/ 가마솔에, 높은 밥/ 딸딸, 굽어서/ 니 주까 봐, 내 목지.”라고 몇몇이 합창을 하였다. 뒷날에는 나도 그들과 어울려 동네를 뛰어다니며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 노래는 예전부터 어린이 사이에 구전동요로 불리던 것이다. 지역마다 가사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하늘 천, 따 지/ 가마솔에, 누룽지/ 박박, 굽어서/ 선생님은 한 그릇, 나는 두 그릇’으로 불리는 것 같다.

배운 것을 외우기 위해서는 우선 소리내어 많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의 서당에서는 하루 종일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선인들은 바람직한 독서법으로 낮은 소리로 많이 읽되 고함을 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높은 소리로 읽게 되면 기운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천자문』을 소리 높여 읽은 것은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어린 마음에 신이 나서 더 그랬던 것 같다. 한문 성독(聲讀)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해야 한다. 의자에 걸터앉아서는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양반다리(가부좌)를 하고 앉아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읽어야 제맛이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선인들은 『천자문』을 하루에 2~4구절(8~16글자)씩 가르쳤다고 한다. 서당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헤아려 20자를 배울 수 있는 자에게는 10자만 가르쳤는데, 이는 항상 정신과 힘이 남아돌게 하여 싫증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배우는 분량은 적게 하되, 배운 것을 읽고 외우는 시간을 많게 했던 것이다. 나도 하루에 2구절 8글자씩 배웠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외워야 할 분량이 늘어났다.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기 위해 더 부지런히 읽었으며, 기를 쓰고 외워야만 하였다. 나는 잠들기 전에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배운 글자는 물론 『천자문』의 처음부터 중얼중얼 외워보기도 하였다. 곁에 주무시던 아버지가 듣고는 “아직 안 자고 『천자문』 외우냐?”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또 한번은 아버지가 산에 땔나무를 하는 데 따라가서 바위 사이에 앉아서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다고도 한다.

# 문학 자판기

김중곤(16회, 경산 농부)

문학이,  
온 국민이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처럼  
한 잔의 달달한 삶의 여유라면  
문학도 자판기에서  
당당하게 팔릴 수 있으리.

이상화 공원이 있는  
수성못 대구 3호선  
지상철역 구내.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무료 자판기가 있네.

긴 글, 짧은 글  
누르기만 하면  
한 편의 따뜻한 글이  
기다렸다는 듯  
자판기가 널름  
혀를 내미네.

국민학교 앞 문구점  
뽑기 놀이하던 그 때 그 아이처럼  
자판기 버튼을  
신기한 듯 누르고  
또 눌러보네.

詩 만이 아니라  
세계의 명문장도  
섞여나오는 문학 자판기.  
현금 영수증 같은 종이 위에  
순식간에 뽑혀 나오는  
문자의 향기들...

나도 이제 나이 어엿한 地空居士\*,  
공짜 전철에  
공짜 자판기까지.  
뽑아든 글을 읽으며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도나제티의  
'사랑의 묘약' 까지  
무료로 보고 돌아가는  
몇 안되는 자본주의의  
행복한 하루.

\*地空居士--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백성.

# 산사 일기 (山寺 日記)

하 용 수(19회)

강원도 山寺 귀퉁이 암자에 빌붙어 지낸 지 닷새가 지났다.

첫날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거의 퍼붓다시피 내린 장맛비로 흥천 인근에서부터 차가 막혀 예정보다 두 시간이나 늦은 오후 다섯 시에야 산사에 도착했다. 저녁 공양을 게논 감추듯 끝내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안내를 받느라 금방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저녁이라고 먹은 음식이 풀 반찬에 양도 적어서 허기가 단단히 졌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가겠다는 일념 아래 아무진 다짐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뽀족한 수가 없지 않은가.

딱딱한 방바닥은 장마철 습한 기운이 눅눅한 채로, 이불을 깔았다. 집에서 자던 라텍스의 적당한 쿠션감과 는 거리가 멀어 허리며, 어썩죽지는 배기다 못해 쭈셨다.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곧 잠을 이룰 것 같았으나 쉽사리 잠이 들지 못했다.

자정이 지나 머릿속은 갈수록 새벽 별빛처럼 맑다. 춥고 배고픔을 다 놓아 버리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름도 모르는 풀벌레 소리는 온데간데없다. 오직 한소리, 계곡을 삼키며 넘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소리가 쿵탕쿵탕 지척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듯, 거친 포말을 일으키며 삼킬 듯이 쳐들어온다. 해일이 방벽을 때리듯, 웅장함을 뛰어넘은 공포스러움으로 모든 소리를 일거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쿠루루릉 대지를 흔들고 있다. 그 소리는 서울 촌놈이 산사에 도착한 첫날 밤, 환영 행사치고는 그리 달갑지 않은 선물이었으며, 사실 난 약간 쫓아 있었다.

이렇게 밤이 밝을까? 숨 고르기에 들어간 장마의 휴식시간에 나타난 반달이 능청스럽다. 마치 장맛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표정으로 심산유곡 생명의 숲을 황금빛으로 씻기우고 있다. 산사의 방안은 어둡지 않다. 문살이 남아 망가진 부분이 간혹 존재하지만, 덧문을 달아서 외부 한기를 막아보고자 애쓴 흔적이 있다. 덧문에는 쇠로 만든 동그란 문고리가 배목(고리 걸쇠)이 험겨운지 바람결에 움직일 때마다 때그락, 문틀과 부딪치는 소리를 낸다. 문창살에 바른 한지는 은은한 달빛을 관통시켜 갓등(燈)을 켜 듯, 창호의 락살무늬가 수를 놓듯 고스란히 베껴졌다.

텅 비어버린 내 몸뚱이 위로 물소리는 더욱더 씩 없이 기괴하게 몰아친다.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어 아예 잠자기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새벽 네 시가 지나자, 몸은 피곤한데 눈과 귀는 죄다 열려 소리, 소리, 그놈의 물소리에 겁먹고 짐을 쌀까 하는 생각도 언뜻 스쳐 갔다.

빼꼼히 미닫이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가 궁뎅이를 걸친다. 새벽 네 시의 山寺는 춥다. 특히 꿩음(!)에 가까운 압도적 소란함으로, 불면에 대한 욕구불만과 몸부림으로 방 밖으로 잠시 후퇴한 처지에, 산사의 계곡은 8월이라 해도 절대 여름이 아닐 만큼 춥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계곡 물소리가 일순 적막감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다. 내 눈에 만물이 어슴푸레 하나둘 밝혀지면서, 뇌가 시야에 들어온 사물들에 대한 인지 활동을 하느라 청각 활동이 잠시 뒤로 밀린 듯하다. 소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으나 나의 의식은 시신경에만 집중되면서, 귓전을 맴돌던 바람의 웅얼거림, 나뭇잎 흔들림, 풀벌레들, 후드득 빗방울 내리는 소리들이 서로 힘겨루기하듯 하나씩 빼꼼히 얼굴을 들이밀며 나타났다. 암자 뒤를 병풍처럼 휘두른 老松의 우람한 가지들은 바람을 타고 휘영청 굵어짐이 마치 黑衣를 뒤집어쓴 亡者가 곡예를 부리듯 달빛에 일렁일렁 춤추고 있다.

호흡을 가다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습한 바람이 입안으로 몰리면서 흠, 갑자기 한기가 몰려왔다. 추위와 오싹함으로 내 어썩죽지를 감싸는 순간, 기세가 한풀 꺾였던 계곡 물소리가 우당탕탕탕, 와아~ 하고 나에게 쳐들어왔다.

“아이코, 추워라.”

바깥바람을 쐬려 나온 지 30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산사의 새벽 찬 기운에 낄소리 한번 못하고 꼬랑지 내린 강아지처럼, 나는 화들짝 겁먹고 냉큼 방 안으로 들어오야 말았다. 이불 속이 따뜻하다. 얼었던 몸뚱이가 이불 속 따스한 온기에 녹으면서 스르르 잠이 온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으스스 달빛도 나의 달콤한 수면을 더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여름 장마가 잠시 쉬었다 가는 산사의 새벽녘, 계곡의 웅장한 물소리 오케스트라의 향연은 꿈속에서도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2021년도 <둔촌백일장> 입상